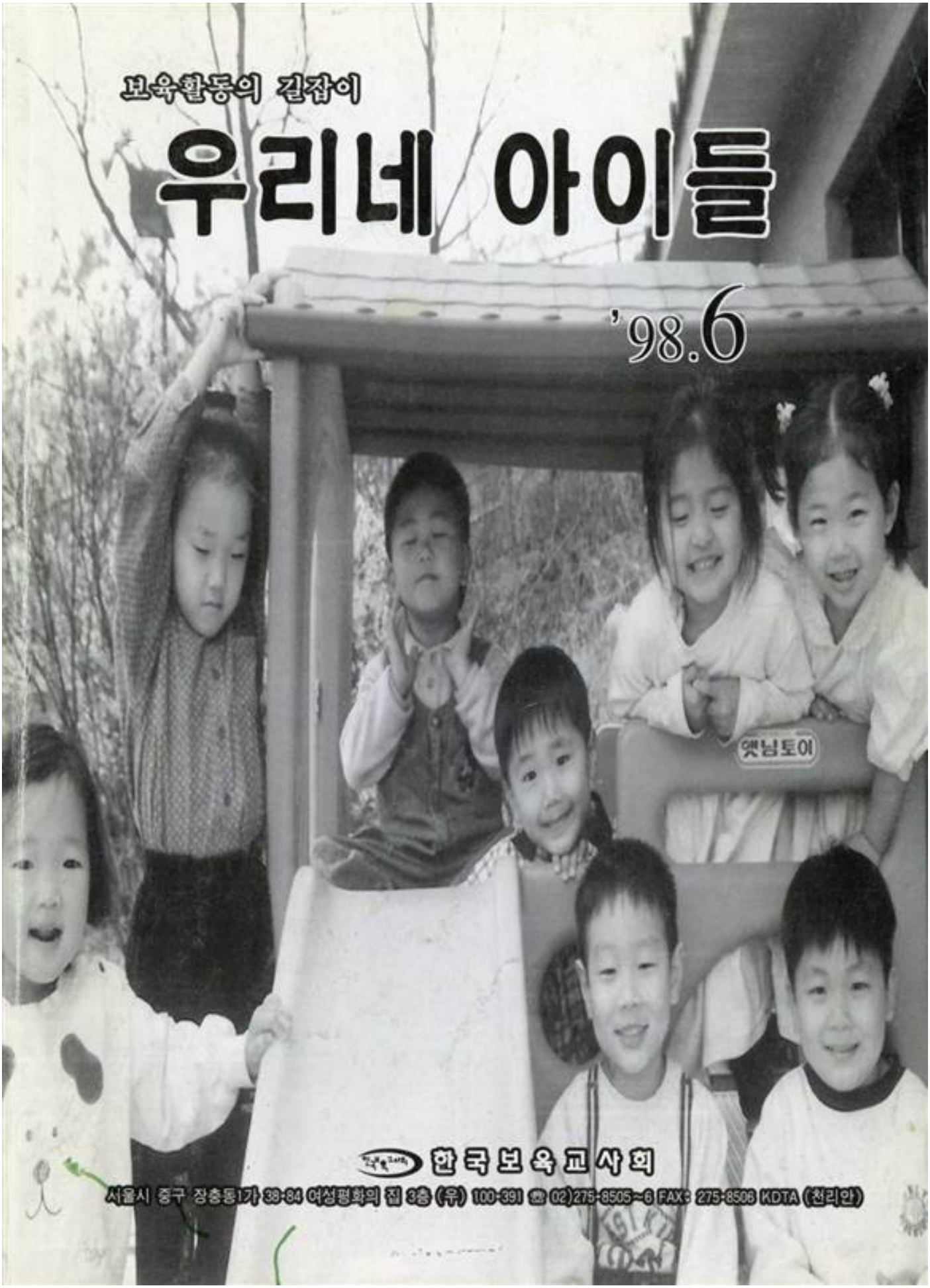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8.6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75-8505~6 FAX: 275-8508 KDTA (천리안)

어린이 권리선언문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떻든간에, 남자이든 여자이든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아로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논다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던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귈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버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8.6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75-8505~6 FAX: 275-8506 KDTA(천리안)

우리네 아이들

98.6월호

<통권 61호>

일하며 생각하며 / 4

아이들의 미래가 보여요! 이은애

보육정책 / 6

당정이 추진중인 유아교육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표갑수

교육센터 / 22

'체벌'의 주제를 통한 발도르프유아원 교육에 대한 구체적 이해 서은희 정리

아동캠프 / 28

애들아 캠프 가자!

(1) 자원활동가와 준비하는 디딤 아동캠프 디딤어린이집

(2) 갯벌에서 뒹구는 중부 아이들 이미영

유아체육 / 34

유아기 신체활동의 중요성 손현민

시설내 건강관리 / 40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설선영

어린이날 행사 풍경 / 43

(1) 내 딸과 함께 한 어린이날 행사 강영신

(2) 제2회 구로어린이큰잔치 김진숙

새로운 출발 / 46

'새싹들의 방'과 '세쌍둥이'와의 만남에 대하여 박은하

소모임 소개 / 48

인천 '들꽃나라' 여행 소모임 이경미

〈표지사진〉

어린이집 앞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놀다가 모처럼 미끄럼틀에 모여서 사진을 찍었다. 천방지축 정신 없던 아이들이 사진기 앞이라선가 순간 으젓해지고... 그래, 너희의 그 밝은 모습에 우리가 힘을 얻는다. 5월을 보내면서... (사진 보내주신 이 : 수원 신나는어린이집 강영신님)

짜·임·새

50 / 현장교육

김경해 아동관찰 - 낮잠

53 / 현장소식

안경아 계양산에서의 인천보육교사회 스승의 날 자축연!!!

55 / 교사의 의견

이현경 함께 한 시간들

57 / 이달에 권하는 책

서은희 『손상된 아동기』

60 / 좋은 그림책 소개

김량희 『흰 토끼와 검은 토끼』

62 / 세상읽기

위양자 또다시 유월을 맞이하면서

64 / 육아일기

나은미 유빈이는 공주병?

68 / 꽁트

박화명 성수의 가짜 곶감

70 / 아이들의 세상 만들기

예술어린이집에서 생긴 일

72 / 우리들의 목소리

이명숙 햇살별곡-거북선생님의 꿈

김경미 짧은 국악교육을 받고서

75 / 보육계 풍향

78 / 소식과 소식

81 / 편집부에서

1998년 6월호(통권 61호)/첫발행 1992년 5월25일/펴낸곳 한국보육교사회/펴낸이 정희연/묶은이 박정애, 이선주, 황미혜/펴낸날 1998년 6월3일

일하며 생각하며

아이들의 미래가 보여요!

이은애 · 한국보육교사회 보육정책개발위원회 위원

1990년, 영유아보육법이라는 새로운 복지정책의 제정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예산 할당이나 시설 확충을 넘어서는 그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가치"의 변화를 선도하며 또한 포함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탁아소"란 단지 무능한 소수 가정을 위한 필요악적인 시설이라는 전통적인 사회인식에서 벗어나 보육시설의 기능을 보다 예방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며, 현대가족의 기능을 원조하는 필수적 시설로서, 일하는 여성과 아이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부모, 그리고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 나가야 한다는 대중적인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일관되게 아이들의 미래를 예견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적인 보육프로그램의 상을 그려내던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시절이 있었기에 우리의 삶은 언제라도 자부심이 넘치고, 그 끈끈한 동지애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998년!

아동보육을 둘러싸고 불과 7~8년에 걸쳐 이루어낸 놀라운 양적성장의 경험과 에너지를 모아 전체 보육시설 아동간의 평등한 복지서비스 수혜권 보장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개발로 부모세대와는 무관하게 아동의 삶의 질이 별도로 논의될 수 있는 진정한 "아동복지의 구현"에 전념하고자 했던 우리에게 새로운 난제 하나가 제시되었습니다.

그 난제의 최초의 모습은 5세아의 무상교육과 3세 이상 유아의 교육과 보호서비스 통합이라는 이상적인 과제의 형태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단의 논의가 유아교육계의 한 축인 교육부 산하 기관들만을 중심으로 진행됨으로써 문제제기의 근거가 파행성을 띠게 되고 이후 관련기관-보육시설과 유치원-과 부처간의 힘 대결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동이 실종된 아동복지 정책 논의"의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태풍 속으로 어떻게, 어느 때, 무엇을 들고서 뛰어들 것인가?

이것이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우리 보육교사회의 난제중의 난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경험을 통하여 "어려운 일일수록 쉽고 즐겁게 푸는 것이 명답을 찾는 길"임을 아는 우리이기에 기꺼이 우리의 숙제를 받아들고서 궁리에 궁리를 거듭하였죠.

한편 반가운 것은 유아교육 재편을 둘러싼 일련의 논의과정를 통하여, 보육의 양적 확충을 가능하게 했던 7공화국 정부의 배후논리인 "(경제발전에 공헌하는) 일하는 여성의 자녀이기 때문에 유아교육과 보호서비스는 확충되어야 한다"는 한계를 뛰어넘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유아교육법 제정에 관한 본회의 의견(『우리네 아이들』 98.5월호 참조) 등을 통하여 아다시피 법안의 문제를 분석하는 준거틀이 과거에 비해 보다 더 "아동복지적"인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입니다. 정책결정 과정상이나 예산의 문제, 가족복지 · 여성복지의 축소 우려의 비판 뿐 아니라 영유아기의 발달욕구에 비추어 본 유아교육기관의 대상연령 범위, 특히 영아의 바람직한 보육모델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기관형태와 서비스 종류의 다양성에 대한 문제제기, 교육의 질을 가름하는 교사양성의 문제, 그리고 유아교육과 보호의 진정한 통합프로그램을 찾는 과정 등은 법 제정 논의결과와 상관없이 모두가 아동의 질높은 보육을 향하는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며, 우리 사회에 "아동중심적인" 아동정책이 탄생하는 산고의 역할을 다하게 해줄 것입니다.

아동의 삶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마다않던 우리가 다시 한 번 신명나게 일할 때가 온 것입니다. 동료교사 여러분 힘내세요!

『즉, 법안의 문제를 분석하는 준거틀이 과거에 비해 보다 더 "아동복지적"인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입니다.

...

앞으로의 과정은 법 제정 논의결과와 상관없이 아동의 질높은 보육을 향하는 밑거름이 되고, "아동중심적인" 아동정책이 탄생하는 산고의 역할을 다하게 해줄 것입니다.』

보육정책

당정이 추진중인 유아교육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표갑수 ·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 청주대 교수

최근 '유아교육법안'이 보육계는 물론 국민적 사안으로 떠오르며 보육, 여성단체 등 각 단체에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고, 지난 5월호에는 본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반대의 입장을 실은 바 있습니다. 이에 독자들이 이 사안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고자 최근 발표된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표갑수회장님의 글을 싣습니다. 이 글은 지난 4월27일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에서 개최한 『영유아 보육제도 개혁방안』에서 주제발표한 내용입니다. 글을 허락해주신 표갑수회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Ⅰ. 문제제기 배경

교육개혁위원회는 지난 1996년 12월 4일 5세아 무상교육을 유치원 중심으로 실시하겠다는 유아교육개혁안을 발표하여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더니, 이듬해 3월 24일에는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유아교육 개혁 방안으로 3개의 안[1]을 발표하여 유아교육 개혁안이 갈팡질팡하면서 또다시 사회갈등을 초래했다. 그후 국회 교육위원회의 유치원 무상교육에로의 수정안과 1997년 11월 17일 국회의원 78명이 발의한 유아학교체제의 유아교육법안, 그리고 1998. 4. 2에 그러한 유아교육법안을 최근 당정이 합의하여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한 3~5세는 유아학교체제로 그리고 0~2세는 보육시설로의 연령별 이원화를 추진하되 **유아학교의 만 5세아는 무상교육을 1998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새로운 유아교육개혁안이 발표될 때마다 그를 둘러싼 관련 학회간의 뜨거운 논쟁, 그리고 이익집단의 사회행동이 기존 한 · 약분쟁 이상으로 표출됐거나 또다시 재연될 조짐이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왜냐하면 만 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 또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한 유아학교에서의 취학직전 1년의 무상교육을 주장하는 **"유치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범국민 연대모임"**(공동육아연구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미래유아교육학회, 부산유아교육학회,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전국유아교육과 교수 협의회 등)과 만 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 또는 유아학교에서의 무상교육이 아닌 초등학교에 유아학년(K-Grad)을 두어 취학직전의 1년을 무상교육과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하는 것이 아닌 이원화체제 유지를 주장하는 **"유아교육법안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정학회, 한국사회복지대학 교수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한국보육교사교육원연합회)가 조직되어 사회행동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양 조직체들은 그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국회청원, 성명서 발표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거나 또 전개할 조짐이 보인다.

사실 우리 나라의 영유아에 대한 국가정책이 초등학교(유치원)와 아동보육(어린이집)의 양대 축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체제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어느 한쪽 바퀴만을 크게 하고, 또 다른 바퀴는 작게 한다면 절름발이식의 유아교육 및 보육체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유아교육 및 보육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유아교육법안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철회하여야 한다.

이에 발표자는 보육제도의 구조조정의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당정이 합의하여 추진중인 유아교육법안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육제도의 올바른 인식과 유아교육의 올바른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Ⅱ.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특성 비교 및 재인식

유아교육법안에서의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하여 '유아학교'를 신설하겠다는 안은 상기 양 기관의 특성을 모르거나 아니면 혼돈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되어 이들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고 이의 올바른 인식 하에서 유아교육법안의 재검토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의 특성 비교는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1. 목적(설치배경)의 비교

① **유치원**은 유아를 담당하는 교육기관이지만 **보육시설**은 가정을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② **유치원**의 목적이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초 · 중등교육법 제35조)이라면, **보육시설**의 목적은 '보호자가 노동 및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영유아보육법 제1조)하는 것이다. 즉 보육시설은 유치원과 달리 '보호가 어려운' 보호자의 조건이 전제가 되는 반면 유치원은 부모의 취업유무와 무관하다는 점이 본질적인 차이점이다. 이는 보육시설이 유치원과 달리 아동의 보호를 1차적인 기능으로 하여 출발하였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보육시설은 사회적 성격, 즉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한 가정의 양육기능의 약화가 그 중요한 등장 배경이 되며, 이처럼 부모의 욕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일정연령 이상의 '발달욕구'에 대한 대응을 일차적 기능으로 하는 유치원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2. 기능상의 비교

- 유치원은 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유아교육을 체계화하여 미래지향적인 유아교육의 정립과 밝고

1) 제1안 : 현행 유치원에 대한 행 ·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공교육체제를 확립하는 안
제2안 :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새로운 유아교육체제로 일원화하여 공교육체제를 확립하는 안
제3안 : 유치원을 새로운 유아학교 체제로 전환하고 문호를 개방하는 안

희망적인 미래상 정립 및 인재 육성의 기능을 한다.

- 보육시설의 보육은 '보육을 결여한' 상태 즉 부모의 **생활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성격[2]을 지닌다. 현재 부모들의 양육곤란 및 양육불능은 주로 산업사회의 부모의 취업이나 질병 또는 가족문제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보육문제는 바로 사회적 성격을 지니는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보육은 이러한 '사회문제로서의 보육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서의 성격[3]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유치원의 경우는 '보육의 결여'를 기본전제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생활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성격도 지니지 않는다.

보육시설의 생활문제에 대한 복지 대책으로서의 기능이란 ① 아동보호가 불가능한 부모(특히 여성)을 대신하여 아동의 보육대행을 수행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사회진출이라는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에 대응하는 여성복지의 기능 수행, ② 이러한 보호대행이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을 장려함으로써 빈곤가족에의 생계지원이라는 간접적 소득지원을 통해 '가정복지의 증진'이라는 가정복지의 기능, ③ 현대 핵가족의 부적절한 양육환경으로부터 아동에게 보다 나은 집단양육을 제공하기 위한 발전적 아동복지[4] 서비스로서의 기능 등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육대상의 범위가 아동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보육사업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일환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와 사회적 욕구에 대한 대책으로 정의되므로, 사회복지서비스로서의 보육서비스도 아동 및 아동의 중요한 환경으로서의 부모 및 지역사회에 대한 대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보육서비스는 유치원에 비해 가족(부모)의 욕구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크다. 직장보육시설은 부모의 욕구에 대한 대책으로서 보육시설이 존재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보육서비스가 아동 뿐만 아니라 아동의 포괄적인 환경으로서의 가족(부모) 및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경우, 보육서비스는 보육시설이 처한 지역과 이를 이용하는 아동 및 부모의 계층적 차이, 보육시설의 유형 등 다양한 보육욕구와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일정연령 아동의 지적 발달에 초점을 맞추는 유치원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5]. 예컨대 문제가 더 집약되어 있는 빈곤지역이나 농촌지역의 경우, 가족이나 지역사회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아동의 가족문제와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보육사업의 포괄적인 서비스가 더 강조된다. 또한 6-12세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정복지증진까지 도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유치원은 교육 중심 서비스이지만 보육시설은 교육 및 보호의 총체적 서비스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3. 취원대상 및 연령 비교

유치원은 부모 근로소득과 관계없이 만 3~5세이지만, 보육시설은 맞벌이부부, 부모의 질병,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취원시키며, 연령은 0~5세까지이며 만 6~12세까지는 방과후

2) 野澤正了, 『兒童養護論』, 장영인 역, 『아동양육의 위기와 사회적 보호』, 인간과 복지, 1995, p. 173
3) 上揭書, p. 173.
4) 이혜경(1991)은 폐쇄된 현대 핵가족의 가정양육보다는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집단양육으로서의 보육사업이 아동기본권보장의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시각을 보육에 대한 '발전적 아동복지적' 입장이라고 칭하고 있다.
5) 물론 유치원에서도 부모교육 등을 중요시하며, 지역사회자원을 고려한 활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아동의 교육 효과성 제고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물론 장애아 보육, 야간 보육, 시간제 보육, 24시간 보육, 관광지 보육도 운영한다(〈표 1〉 참조).

4. 교육(보육)시간 및 일수의 비교

유치원은 9-12시(3시간 원칙)까지이며 교육일수는 년간 180일인데 반해, 보육시설은 7시 30분~19시 30분(12시간 원칙)까지이며 보육일수는 방학없이 년간 300일로 되어 있다(〈표 1〉 참조).

5. 교육(보육)내용 비교

유치원은 유치원 교육과정에 입각하고,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과정, 즉 만 3세~5세는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만 0세~2세는 영아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표 1〉 참조).

6. 교사자격 비교

유치원은 전문대 유아교육 전공 이상자로 되어 있지만, 보육시설은 연령에 따라 자격조건이 달라진다. 즉 유아(3~5세)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라야 되며, 영아(0~2세)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이상이어야 한다(〈표 1〉 참조).

7. 기타 종사자 비교

유치원은 운영규모나 재정에 따라 사무원이나 보조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보육시설은 시설규모에 따라 조리사, 간호사,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다(〈표 1〉 참조).

8. 교육(보육) 비교

유치원은 사립과 공립(병설)에 따라 교육비가 차이가 있으며, 교육비는 교육에만 사용된다. 보육시설은 연령에 따라 다르며 민간과 정부지원시설(국·공립, 법인)간의 차이가 다소 있다. 보육비는 보육(보호와 보육), 간식(1일 2회), 급식(중식)비에 사용된다(〈표 1〉 참조)..

<표 1>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성 차이 비교

	유 치 원	어 린 이 집
목 적 (설치 배경)	· 유아담당의 교육기관 · 유아교육, 유아에게 알맞는 교육환경 제공→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조장 (초·중등교육법) · 교육의 필요성에서 설치	· 가정을 대신하는 교육, 보호기관 · 보호자가 노동, 질병, 기타 사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 교육을 통하여 사회성원으로 육성,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하여 가족복지증진에 기여(영유아보육법) · 사회적 필요성(맞벌이 부부, 부모질병, 저소득층 자녀보호)에서 설치

	유 치 원	어 린 이 집
기 능	· 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유아교육을 체계화 하여 미래지향적인 유아교육의 정립으로 밝고 희망적인 미래상 정립 및 인재육성	· 아동보호가 불가능한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의 보육을 대신 수행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여성복지기능 · 보호대행이 저소득층의 여성취업 장려→빈곤가족의 간접적 소득지원을 통해 가정복지증진 기능 · 부적절한 양육환경으로부터 아동에게 보다 나은 집단양육을 제공하기 위한 발전적 아동복지서비스로의 기능 ·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의 포괄적인 환경으로서의 가족(부모), 지역사회문제 및 욕구에 대한 대응 기능 · 총체적 서비스 기능 · 더욱이 6-12세의 방과후 프로그램운영으로 복지까지 연계하여 가정복지증진까지 도모할 수 있는 통합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
취원 대상 연령	근로 · 소득과 관계없이 만 3세~5세	근로 · 건강 등 가정양육이 어려운 만 0세~5세 6세~12세 (방과후 프로그램) 장애아보육, 야간보육, 시간제보육, 24시간보육
교육 (보육) 시간	9시~12시 (3시간 원칙)	7시 30분~19시 30분 (12시간 원칙)
교육 (보육) 일수	년간 180일	년간 300일 (법정 공휴일 제외한 전일, 방학없음)
교육 (보육) 과정내용	교육부, 유치원 교육과정	· 만 3세~5세 - 오전: 연령별 유아교육과정 오후: 복지부제정 보육프로그램에 준함 · 만 0세~2세 - 발달연령 단계별 복지부제정 영아 프로그램에 준함
교사 對 아동비율	한 학급당 교육법상 40명으로 1 : 40의 교육으로 이루어짐	연령별 엄격구분 · 만 5세 - 1 : 30 · 만 3 · 4세 - 1 : 20 · 만 2세 - 1 : 7 · 0세~1세 - 1 : 5
교사자격	전문대 유아교육 전공 이상자 유치원 2급 정교사	· 유아(만 3~5세): 유치원정교사자격소지 · 영아(0~2세): 보육교사 자격소지자 이상 (보육교사 교육원 1년 과정 수료) - 보건복지부지침상 전교사 중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임용비율을 4 : 6으로 규정하고 있음
관련학과	· 유아교육학과	·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아동학과, 가정관리학과, 보육학과, 가정학과, 아동 · 가족학과, 가정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기타 종사자	· 유치원 운영규모나 재정에 따라 사무원이나 보조교사를 임용할 수 있음	· 50인 이상 시설: 조리사 의무화 · 100인 이상 시설: 간호사 의무화 · 5개 시설 정도씩 그룹으로 영양사 채용

	유 치 원	어 린 이 집
교육비 (보육료)	· 사립: 100,000원, 공립: 22,000원 -5학급 기준 (학급당 40명)	· 유아(3세~5세): 109,000원(학급당 20명) · 영아(2세) : 176,000원(학급당 7명) · (0세~1세): 213,000원(학급당 5명)
특기사항	· 교육비는 교육에만 사용	· 보육료: 보육(보호와 교육), 간식(1일 2회, 오전/오후), 급식(중식), 개인 교재용 소모성 재료비 일체 포함하여 사용됨
개소 수 (인원)	9천 개 소 (578천 명)	15천 개 소 (538천 명)

III.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당정이 추진중인 유아교육법안의 주요골자와 그 문제점 및 반대 이유

1. 유아교육법안의 주요골자

1)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유아학교"로 통합 일원화한다.

2) 영유아 교육관련 법안을 통폐합 유아교육법을 제정한다.

3) 초등학교 취학직전(만 5세 아동) 1년의 유아학교 교육은 1998년부터 무상으로 한다.

4) 교육부는 '유아학교'(만 3세~만 5세)를 관할하고 보건복지부는 영아보육법을 제정하여 영아보육(0~2세)를 관할한다.

5) 사회복지법인의 보육시설도 유아학교로 통합하여 교육부에서 관할한다.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유아교육정보센터를 설치 · 운영한다.

7) 유아학교는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유아에게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부 장관이 정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8) 유아학교의 교사자격 기준을 보육교사 중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는 이 법에 의한 정교사 2급 자격 소지자로, 보육교사 2급 자격 소지자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거쳐 준교사 자격 소지자로 인정한다.

2. 유아교육법안의 문제점과 반대 이유

1) "무상교육"이라는 용어문제와 잘 화장된 '유아학교'의 실체

(1) 무상교육의 용어문제

우리 나라의 헌법 어디에도 무상교육이라는 용어는 없다. 다만 의무교육이 있을 뿐이다. 무상교육의 철학이나 이념적 토대는 무엇이며, 무상교육이 의무교육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에 의문을 제기한다.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기는 하나 무상교육이 아닌 것은 초등학생의 교육에 부모가 일부분이라도 교육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철학의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초등학교 교육에 드는 모든 비용을 국

가가 부담하지 못했던 현실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필자는 전자가 주된 이유였으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후자와 결부되었을 것으로 본다. 아동을 교육하는 주체는 부모와 국가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아 무상교육안은 행여 일반인들에게 정치적 바람을 일으킬 지는 모르나 바람직한 교육개혁안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무상교육이란 말은 채택했으나 이 정책으로 국가 부담과 부모 부담의 범위를 설정하지 못하여 그 어떤 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견으로는 극히 일부라도 부모가 유아의 교육비를 지불해야 한다. 그것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상징적 차원의 것이라고 해도 좋다.

무상교육은 국가가 주체로 아동을 책임지고 교육한다는 진보적인 사회주의적 발상이 아닐까 생각된다. 무상교육의 실시는 국가의 재정을 감안해 볼 때 매우 어려운 과제다. 현실적 어려움은 세계 국가들에서도 완전 무상교육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에서 확인될 수 있다. 북한에서 조차도 유치원 과정의 낮은 반은 월 11원과 양곡(식량권)을 부모가 내야하고 높은 반에는 6원과 양곡을 부모가 부담한다. 북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100원 미만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북한의 부모는 적지 않은 비용을 유아교육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 모든 아동이 국가의 혁명 투사로 간주되고 국가가 아동 보육의 일차 책임자임을 법에 명시한 북한에서조차 이러한 실정이다. 더구나 북한 인민은 모두 근로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체제인데도 말이다. 자녀의 교육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자 권리이기도 하다[6]. 따라서 우리 체제에서 유아의 교육을 담당할 책임 주체를 명시하고 이러한 정책을 신중히 재고해야 할 것이다.

(2) 특정기관인 **"유아학교"**에서의 무상교육 문제

유아학교라는 특정 기관의 만 5세 아동은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모이고 혹, 국가나 회사 등에서 공무원과 회사원 자녀의 교육비를 부담할 때에는 일단 부모가 납부한 금액을 봉급에 합산해 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5세 유아의 경우만 유아학교를 통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비용 관리의 투명성 문제다. 국·공립 유아학교라면 국가의 관리와 감독이 따르고 기관은 비용 사용의 투명성에 책임이 따르나, 사립기관이라면 그러한 투명성이 보장되기 어렵고 국가기관이 감독할 여력도 없어서 자칫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될 지 모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은 특정 기관을 통한 지원이 아니라 의무교육기관인 유아학년을 둔 초등학교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3) 잘 화장된 **"유아학교"**의 실체문제

유아교육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유아학교를 설립해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이끌겠다는 목적에서 실시한다고 한다. 어느 기관이든 아동에게 주는 서비스와 교육내용의 질을 높인다는 노력에는 적극 찬성이다. 그러나 자칫 유치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아학교를 신설한다는 오해를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이미 언급했듯이 ① 1994. 9. 5에 만 5세아 무상교육을 위해 초등학교에 유아학년을 두겠다는 유아교육개혁안이 발표되었는데, 유치원 관련 단체에서 유치원 대상아동이 유치원에 취원하지 않고 초등학교로 가기 때문에 유치원 아동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무산된 적이 있고, ② 보육시설확충 3개년사업('95~'97)에 비해 교육부의 유치원 지원은 상대적으로 매

6) 이순형,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유아체제개혁안에 대한 공술", 『한국영유아보육학』, 제10집, 1997. p. 337.

우 열악하기에 이의 돌파구로 유아교육개혁안을 제정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2) 당정합의(1998. 4. 2)의 유아교육법안은 기존의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일원화화하여 보호기능을 갖춘 유아학교를 도입하는 방안은 통합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재검토 되어야 하며 더욱이 통합은 수요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원화 체계가 강화·유지발전 되어야 한다.

당정이 제시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일원화체계는 앞에서 언급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특성 차이 비교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보육시설을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① 유치원에서 종일반을 운영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조리사, 영양사, 간호사, 추가되는 보육교사 등)와 운영비 및 설치비(약 1조원)가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이미 보육시설에서 종일반(12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유치원이나 유아학교까지 별도의 예산을 들여가며 할 만큼 12시간의 '보육수요'가 있는지 그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7].

② 또 보다 근본적으로 '종일반'의 의미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유치원 관계자는 왜 보건복지부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융자 하면서 보육시설을 만들어 종일반을 운영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종일반은 단순히 시간의 연장만이 아니다. 종일반 유아의 부모 중 많은 수가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 자녀 또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황(질병, 장애 등)이기 때문에 유아를 종일반에 보내고 있다. 때문에 보육시설에서는 소위 '가정'의 영역까지 개입하여 아이의 보호와 교육, 그리고 가족기능이 원만치 못한 가정에 가족기능을 보완하고 지지하고 대리하는 측면까지 고려한 총체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예컨대 자녀문제, 가정문제가 있을때 보육교사(사회사업가)가 상담 및 지역사회 자원(사회복지관)을 활용하여 해결하기도 한다. 그런데 유치원이나 신설될지는 모르지만 유아학교에서 가능하겠는가?

③ 보육시설에서는 사회복지의 아동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지역의 저소득 자에게 일부 비용을 시설이 부담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교육시키고 있으며, 또 필요한 경우 시간제 보육(2-3시간 정도), 야간보육(17:30 -07:30), 24시간 보육, 장애아 보육, 연장보육 그리고 방과후 보육(국민학생 6학년까지 학교교육이 끝난 후의 보육)까지도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에서 시간제 보육,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방과후 보육 그리고 총체적 서비스 등이 가능한가? 이렇듯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서로 다른 배경에서 출발한 것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다면 공통적 기능은 물론 서로 다른 태생적 배경을 반영하는 차별적인 기능과 역할도 있다. 더욱이 유치원은 입원시기가 3월, 6월, 9월로 한정되어 있어 입원에 제한이 따르며(어린이집은 입원시기가 별도 없이 항시 입원가능), 1년에 180일간의 방학이 있기 때문에 탁아의 기능은 더더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180일간의 방학동안은 어디에서 교육할 것인가. 또한 유치원이 거의 설치되지 않은 농어촌, 빈민지역의 아이들은 그러한 혜택권에서 벗어나는데 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리고 직장보육과 가정보육의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따라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통합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이 되어서는 안된다.

7) 표갑수, "교육위원회의 유아교육체제 개혁안의 검토", 『한국영유아보육학』, 제9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7, p. 157

그런데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한 유아교육의 일원화 정책은 〈표 2〉에서 보듯이 북한, 중국, 소련, 헝가리 등 주로 사회주의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우리 나라와 전반적인 교육체제 뿐만 아니라 정치이념이 전혀 다른 나라의 제도이다. 반면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우리 나라처럼 유아교육기관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유아교육기관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핵심적인 이유는 빈부격차가 필연적인 자본주의의 모순을 타개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를 강화하고 중산층 이상의 모든 유아들의 교육에 까지 정부예산을 대폭지원할 수 없는 국가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면서 예산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외계층 자녀교육을 집중 관리하는 보육시설을 유치원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1926년 「유치원령」에서 처음으로 부모가 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가정교육을 행하는 것이 곤란한 자가 다수 살고 있는 지역에 유치원을 보급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유치원에 탁아소적 기능을 갖게 해야 한다는 조문을 삽입함으로써 유보일원화의 논쟁이 제기되었다[8]. 그리고 학계의 움직임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이전 호우세이대학(法政大學)의 시로토한타로(城戸幡太郎)를 중심으로 「보육문제연구회」가 조직되었는데, 이 보육문제연구회에서 어린이들의 성장발달단계를 기반으로 하는 유보일원화구상이 제안되었다[9]. 그 내용은 「취학전의 교육은 유아의 정신발달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만 3세 이상아의 보육과 만 3세 미만아의 보육을 구별해야 한다. 유치원은 만 3세 이상아를 보육하고, 만 3세 미만아는 신체의 양호[10]를 주로 하는 보육시설에서 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치원령」의 개정과 더불어 새롭게 「보육시설령」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시로토한타로(城戸幡太郎)의 「유보일원화론」은 보육시설에 재적하고 있는 만 3세 이상아를 유치원으로 통합하려한 것이었다[11].

<표 2> 외국의 유아보육 및 교육실태

모 형	내 용	주 관	실 시 국 가
· 이원병행체계 (유치원과 어린이집 별도 운영)	· 보육기능과 교육기능기관을 분리 병행 · 수요자(보호자)가 선택	· 보건복지부 · 교육부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 일원통합체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운영)	· 보호기능과 교육을 일원화 - 종일제, 반일제, 시간제 운영	· 보건복지부	스웨덴, 핀란드
· 연령구분체계	· 0-2세의 보호 · 3세-취학전 교육	· 보건복지부 · 교육부	사회주의 이념 국가에서 도입 북한, 프랑스, 독일, 이태리, 러시아, 중국, 헝가리 등

※ 유아보육 및 교육체계는 각 국별로 사회 및 교육체계에 따라 선택하고 있음.
※ 초등학교에 유아학년제도 실시국가 : 현재 미국, 호주, 영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스웨덴도 6세아는 유아학년반 도입방안 강구중에 있음

8) 小館靜枝 「幼保一元化」, 『保育硏究』 通卷19號, 建帛社, 1985年 2月, p. 70.
9) 曾和信一 「教育編祉論ノート」, 『人間科學』 第22號, 關西大學大學院, 1984年 3月, p. 24.
10) 일본에서 「양호(養護)」란 「보호」와 「보육」을 합친 개념으로써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1) 池田鮮子 「『保育』 理念の行方」, 『東京文化短期大學紀要』 第6號, 1985年, P. 19.

이러한 유보일원화 논쟁은 몇 차례 진통을 겪었지만 유아교육의 일원화보다는 이원화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짓고 보육시설의 순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보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던 보육시설의 장학지도 제도를 복지성으로 이관하면서 영양사, 간호사 등 보호기능 관련 전문가와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육시설 장학지도위원회**를 발족시킨바 있다. 이 역시 유보일원화 제안은 실질적으로 아동수의 감소에 따른 정원감소의 현저화에 따라 아동들을 좀더 각자의 시설에 등원시키게 하기 위한 아동쟁취 작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12]의 법의 정신을 살려 유치원에서 탁아기능을 포함할 것이 아니라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그 교육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구태여 **유치원에 탁아기능을 포함한다면 유치원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개칭하여 보건복지부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그것이 현재의 법체계를 준수하는 것이 되며 또 현실적일 것이다. 만약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유치원에서 교육과 보호를 한다면 옥상옥의 또다른 법 개정에 불과할 것이다. 법 개정이 만능은 아닐 것이다. 이원화체제가 유지될 때 소비자의 선택이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3) 유아교육법안을 '교육기본법' 하위 법으로 설정해 놓고 추진되는 현재의 입법 요구는 '사회복지 관련 법' 체계를 무시하고 있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유아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과 같은 교육기본법의 하위 법으로 설정해 놓고 있어, 유아교육 개혁을 교육부 소관의 유아교육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 및 가족복지의 주요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유아교육법안은 법률체계를 무시하고 타 주무부서의 주요 업무에 대해 일방적으로 개입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4) 영유아교육관련 법안을 통폐합하여 유아교육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정부의 그동안의 영유아 보육사업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

현재 유아교육진흥법은 새마을유아원의 근거 법으로 유명무실한 법이나 현재의 영유아보육법은 탁아사업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1년 보건복지부, 교육부, 내무부의 3개 장관의 합의하에 소위 70년대의 탁아사업과 80년대의 유아교육을 통합한 법령이다. 더욱이 아동보육정책은 3개년('95-'97)에 1조 3천억이 투·융자되었으며, 또 그간 정책의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는 정착단계에 있다. 그러므로 법 개정을 구태여 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잦은 법 개정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유아정책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5) 공교육체제로서 초등학교 취학직전의 만 5세 아동 1년의 유아학교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방안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유아정책 차원에서 아동의 연령을 1세 하향 조정하여 국민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면 이것을 공교육화 즉, 초등학교에 유아학년(K-Grad)을 두어 선진국처럼 실시하면 될 것이다. 유아교육법안에서 제시된 공교육(만 5세아)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애당초 유치원의 필**

12)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은 보호자가 노동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성에 의해서 제기된 것으로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반대한다. 이에 1994. 9. 5 유아교육개혁법 1차안인 만 5세아 무상교육 기본학제화(초등학교에 유아학년)를 지지한다.

현재 아동, 특히 영유아에 대한 국가 정책이 초등학교(유치원)와 아동보육시설(어린이집)의 양대 축이 있으며 그밖에 각종 사설 예체능학원 등이 있다.

아동에 대한 국가 정책으로서 현 취학전 아동의 연령(만 5세)을 1세 하향 조정하여 국민 교육(초등교육)체제를 연장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을 무상(의무) 교육화 시키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만약 당정의 결정, 만 5세 아동을 취학시키려면 미국, 호주, 스웨덴 등에서 실시하는 것처럼 초등학교 교육에 수용하면 될 것이다. 초등학교에 유아학년을 두는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 [표갑수(청주대 교수)가 1997년 4월 8일에 실시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청주, 전주, 춘천, 영동군, 홍성군, 괴산군 지역의 1,218명에게 전화 면접 결과] 에서도 그 타당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즉 **유아학년을 둔 초등학교의 공교육 체제 지지가 56.4%나 되었지만 유치원은 18.5%에 불과하였다**[13].

<표 3> 공교육체계로서의 일반 국민이 바라는 만5세아 무상의무교육기관 ( ) 안은 실수

기관별 / 지역별	초등학교에 유아학년(K-Grad) 편입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과 어린이집 다같이	합 계
대 도 시	50.6	16.0	16.0	10.6	57.3(696)
중 도 시	62.0	16.4	16.4	6.7	26.7(324)
소 도 시	56.7	17.5	17.5	16.4	15.9(194)
합 계	**54.6(663)**	18.5(225)	16.1(196)	10.5(128)	100.0(1214)

$\chi^2 = 36.155$, DF = 6. $P < 0.0001$

잘 알다시피 출산율의 저하로 초등학교의 시설과 교사는 예전에 비해 남아도는 경향이 있다. 남는 시설을 이용하고 교사를 재교육하거나 충원하여 유아학교 1년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면 국가적으로 몇 가지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다. 첫째는 공교육이 명실상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시설과 인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이득이다. 셋째, 국가 관리의 용이성과 효율성이다. 현재 교육부의 관리 체제를 크게 바꾸지 않고 다소의 인력 보완으로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상교육이 유치원 관계자의 필요성에서 주장되는 것은 배격되어야 한다. 지난 80년대 조기교육의 필요성에서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많은 유아교육학과 교수들과 학생들이 배출되어 이들이 유아의 공교육화를 주장하였다.

6) 당정의 유아교육법안의 만 5세아 무상교육은 우리 나라가 중학교(연단위는 실시) 조차도 국가 재정상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 5세아 무상교육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볼

13) 표갑수, "교육개혁위원회의 유아교육체제 개혁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 유아교육체제 개혁안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1997, pp. 9-10.

때 재검토 되어야 한다.

공교육체제로서의 먼저 시행하여야 할 의무교육 기관의 연장은 유치원보다도 고등학교까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까지(중학교 포함) 의무교육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은 79.1%로 매우 높지만 유치원에서의 무상의무교육의 지지는 5.5%에 불과했다. 그런데 유치원 무상교육 추진 연대모임의 조사결과는 만 5세 아동에 대한 취학전 1년 무상교육 실시안에 대해 찬성이 85.1%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렇게 찬성이 많은 이유는 단순하게 취학전 1년 무상교육에 찬성하느냐라고 질문했기 때문일 것이다. 오히려 100%가 왜 아닌지 궁금하다. 따라서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이 정책의 우선순위라 본다.

이는 표갑수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입증해 주고 있는데 〈표 2〉에서 보듯이 일반국민의 바램도 의무교육은 60.7%가 고등학교까지 되어야 한다고 하며, 중학교까지는 18.4%, 기존의 국민학교에 유아학년(K-Grade)을 두어 국민학교까지가 8.1%, 유치원 5.5%, 어린이집 4.4% 등으로 나타나 **결국 중학교 이상에서 먼저 의무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지지한 국민은 79.1%였다**[14]. 따라서 유치원 무상교육은 5.5%만이 원하고 있으므로 교육개혁안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표 4> 일반 국민이 바라는 무상의무 교육기관 ( ) 안은 실수

기관별 / 지역별	중학교 까지	고등학교 까지	국민학교 (K-Grad)	유치원	어린이집	기 타	무응답	합 계
대도시	19.8	55.1	9.4	7.1	4.4	3.0	1.0	57.5(700)
중도시	18.8	66.2	5.9	4.3	4.0	0.6	0.3	26.6(324)
소도시	12.8	72.1	7.2	1.5	5.1	0.5	0.5	15.9(194)
합 계	**18.4(225)**	**60.7(740)**	8.1(99)	5.5(67)	4.4(54)	2.0(24)	1.4(9)	100.0(1218)

$\chi^2 = 42.189$, DF = 14. $P < 0.001$

7)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하여 3-5세는 유아학교 체제로, 그리고 0-2세는 보육시설로의 연령별 이원화는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므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0-2세의 영아전담보육은 교사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어 민간 참여(현재 보육시설의 78%가 민간부분임)가 불가능하므로 공보육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보육화를 위해서 막대한 영아보육운영비(연간 약 2조 5천억원)를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정부가 지원하겠는가. 또한 이것은 그동안 보육시업확충 3개년('95-'97) 계획으로 이미 투·융자한 1조 3천억원의 국가재정의 비효율성을 동시에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용에 많은 불편이 따른다. 예컨대 한 가정에 1세와 4세가 있을 경우, 1세는 영아 보육시설에, 4세는 유아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어 어린 자녀를 이산가족 아닌 이산가족으로 만들고, 현대

14) 상게자료, p. 10.

사회에 필요한 야간보육, 연장보육, 24시간 보육, 시간제 보육, 직장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사장시킬 위험에 놓이기 되는 등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따른다.

8)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을 유아학교로 통합하여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것이 법체계상 모순되며 유치원 종일제 운영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만약, 사회복지법인인 보육시설이 사립유아학교를 설립하고자 할 때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유아학교로의 설립 운영이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 유치원에 탁아기능을 포함하여 종일제로 운영한다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현재 종일제로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로 시설을 변경하면 될 것이다. 아울러 그 특성상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9) 유아학교로 통합됨으로써 국가예산의 낭비요인이 제거된다는 하고 있으나, 오히려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유아학교가 종일반 보호기능까지 담당하게 된다면 현재 유치원 시설에 종일반을 운영하기위해 주·부식비, 간식비가 추가되고 또 취사부, 간호사, 영양사 등의 인력 증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교육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정부가 증가되는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가되는 비용만큼 교육비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고 인상된 교육비는 수요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보육시설에는 없는 조리실 등을 예산을 들여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기존 시설을 유아학교 설치규정에 맞게 개·보수하는 추가적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더군다나 모든 유아들이 종일반을 희망하는 것도 아닌데 이를 고려해 모든 시설에 인력이나 설비면에서 종일반 준비를 한다는 것도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법안은 '유아교육정보센터'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보건복지부 관할의 보육정보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어 중복투자의 부담도 있다.

10) 유아학교는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유아에게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부 장관이 정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도 재검토 되어야 한다. 보호자의 근로, 질병, 기타 사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자녀를 사회복지 차원에서 보육시설을 1961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그 특성상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지 복지관련 부분을 교육부 관할로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 유치원에서의 보육프로그램이 있는가?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연령별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지 오래된 일이다. 물론 보육시설에서 교육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어, 영유아보육법에 교육부에서 보육시설에 장학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교육부에서는 교육시설이 아니라고 장학지도를 사실상 거부하여 왔다. 유아교육 차원에서 장학지도를 앞으로는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스웨덴은 보육시설에 교육부가 장학지도를 하고 있다.

11) 유아학교 교사의 자격기준은 보육교사에 대한 취업제한 이라는 불합리성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유아교육학과는 유아의 '교육'에 초점을 둔 교과과정을 갖추고 있고(유치원교사 자격증), 보육관련학과는 유아의 '보호'와 '교육'에 초점을 교과과정을 갖추고 있음(보육교사자격증). 만약 유아학교가 지금의 보육시설과 같이 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동시에 강조하는 종일반으로 운영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유아교육학과 졸업생보다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안의 교사자격기준은 유아교육학과 졸업생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과조치로도 유치원교사자격증 1, 2급은 그대로 유아학교 정교사 1, 2급으로 인정하지만 보육교사 1급은 정교사 2급으로, 보육교사 2급은 소정의 연수를 거쳐 준교사로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는 등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법 조항은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배출되어 온 보육교사의 설 땅을 한순간에 잠식함으로써 취업기회를 제한하고 생계를 위협할뿐만 아니라(연간 13만명이상 배출)[15] 보육교사 양성과 관련된 교육부 행정을 스스로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일 것이다. 정말로 유아교육개혁안을 입안하는 관련자의 사고는 이해할 수 없는 상태다.

Ⅳ. 발전적 대안 모색

이상에서 보았듯이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유아교육 개혁안은 그 논리성이 약하고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유아교육 관련 학회, 기관 및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을 조장할 뿐, 비전있는 유아교육 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유치원 활성화를 위한 개혁안으로 판단된다. 이에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안 : 특정기관인 유아학교에서의 만 5세아 무상교육이 아닌 국민교육 차원에서 취학아동의 연령을 1세 하향조정하여 초등학교 체제에 유아학년(K-Grad)을 포함시켜 의무교육의 공교육체제를 확립하는 안

1. 내 용

- 선진국(미국, 호주, 스웨덴 등)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 나라에서도 유아학년을 초등학교에 두어 교육부가 추진하면 공교육체제 확립이 가능함.

2. 장 점

- 초등학교에 유아학년을 둘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가능하므로 유치원과 보육시설간에 유아를 유치하기 위한 갈등이 해소된다.
- 유아교육의 질도 일정수준이상 될 수 있다.
- 병설유치원이 아동이 독립된 유치원의 아동보다 초등학교에 입학후 적응력이 빠르므로 초등

15) 이소희, "보육교사 수요체계와 공급체계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 제 3집, 1995.

학교에 유아학년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 5세아 의무교육이 가능하며 유아교육 학자가 주장하는 조기교육이 실현된다. 사실 유아교육 학자들은 2세 이상을 조기교육 대상에 포함하지만 외국에서 조차도 3세 이상에게 조기교육 효과에 대한 합의된 것은 없다. 다만 빈곤층 아동에게 Head Start Program을 적용한 결과 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결과를 마치 3세 이상의 유아에게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 당정이 추진중인 유아교육법안의 핵심인 공교육체제 확립의 실현이 이루어 진다.

제 2 안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고유기능을 강화와 보완하는 이원체제 유지 안

1. 내 용

- 보호와 교육중심의 어린이집과 교육중심의 유치원의 고유기능을 유지 · 강화하고 보완해 나감

2. 장 점

- 수요자가 교육과 보호의 선택이 자유롭다.
- 영유아의 특수한 보육여건 즉,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시간제 보육, 주일제 보육, 방과후 보육, 장애아 보육 등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처할 수 있다.
- 정부의 예산 부담능력 한계를 극복하면서 사회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보육 집중 관리로 예산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유치원이 보호기능을 수행하는데 추가되는 소요비용 약 1조원(1개 시설에 보육실, 조리실 등 필수시설 만을 보강하더라도 1,000만원 소요) 인건비(영양사, 간호사, 취사부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 양 기관이 지역적으로 불균형하게 배치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3. 보 완

- 스웨덴처럼 보육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인정하며 교육부가 장학지도를 실시하므로 보육시설의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 질 것이다(그렇다고 유치원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교사의 73%가 전문대 수준이며, 사립 유치원의 원장자격 소지자는 ' 94년 현재 23% 수준이기 때문이다).
- 아니면 일본과 같이 교육부가 담당하게 되어 있는 보육시설의 장학지도 제도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시행령을 고쳐 보호관련 전문가와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육시설 장학지도위원회를 발족시켜야 한다.

제 3 안 : 유아교육(보육) 관련자의 상호협력체제를 마련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안

유보이원화가 유지된다고 하였을 때 보육시설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그리고 유치원의 예방접종 등의 보건활동 등에 대해 관련부처의 협력을 유지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동일한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 유아기의 최대의 이익을 위해 기능 해야 한다는 공통점 등을 고려한 체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부, 보건복지부, 유아교육학자, 아동학자, 사회복지학자, 관련단체 대표, 학부모 등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V. 결 론

당정은 국민여론의 향방을 정확히 검토하여 국민적 지지를 받는 유아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당정이 추진중인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유아교육의 방안은 특정 기관인 "유아학교"(실체는 아직 없지만)가 아니라 국민교육 차원에서 아동의 취학연령을1세 하향조정하여 현존의 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 유아학년(K-Grad)을 도입하는 것이 현실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무상교육의 우선 순위도 유치원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를 더욱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육시설 질적 향상을 위해서(그렇다고 유치원은 질적 수준이 높다는 전제는 아님), 진정으로 교육부가 유아교육을 위한다면 보육시설의 장학지도를 거부하지 말아야 하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보건복지부 자체로 장학지도 제도를 도입 · 실현해야 한다.

끝으로 보육사업의 구조적 조정은 외부의 단편적인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 아닌 보육사업관계자(학계, 보육시설단체, 보건복지부 등)의 필요와 요구가 있을 때에만 효과적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이순형,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유아체제개혁안에 대한 공술", 『한국영유아보육학』, 제10집, 1997.

표갑수,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유아교육 개혁방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 교육개혁위원회, 1996.

_____, 교육개혁위원회의 유아교육체제 개혁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 유아교육체제 개혁안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1997.

_____, "교육개혁위원회의 유아교육체제 개혁안의 검토", 『한국영유아보육학』, 제9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7.

小館静枝「幼保一元化」, 『保育研究』 通巻19號, 建帛社, 1985年 2月, p. 70.

野澤正了, 『兒童養護論』, 장영인 역, 『아동양육의 위기와 사회적 보호』, 인간과 복지, 1996, p. 173

池田祥子「『保育』理念の行方」, 『東京文化短期大學紀要』 第6號, 1985年, P. 19.

曾和信一「教育福祉論ノート」, 『人間科學』 第22號, 關西大學大學院, 1984年 3月, p. 24.

교육센터

'체벌'의 주제를 통한 발도르프 유아원 교육에 대한 구체적 이해

강연 Wolfgang Sassmanhausen · 도르트문트 루돌프 슈타이너 보육교사 사범대학장
통역 윤선영 · 독일 베를린대 유아복지교육학 박사과정
정리 서은희 · 본회 부회장

이 글은 지난 4월 13일에 있었던 한국보육교사회 부설 교육센터 주관의 '슈타이너의 교육철학과 발도르프유아원의 교육' 강좌 中에서 두 번째날 있었던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슈타이너교육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의 동료교사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자리를 갖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윤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시는 테마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주신 여러 주제들 中에서 '체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도르프교육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선 몇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안에 들어있는 교육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공놀이를 하다가 공을 던졌는데 그 공이 아주 예쁘고 귀한 화분을 깨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화분은 교사(혹은 엄마)가 가장 아끼는 화분이였습니다. 엄마나 교사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아이를 한 대 때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겠는데요. 한 남자 아이가 교사에게 와서 '어떤 아이가 때려요'하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벌로써 항상 아이들을 괴롭히는 가해아이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세 번째 예로, 오늘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게 앞에서 차를 멈추고 물건을 사려고 했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와 보니 자동차에 주차위반 딱지가 붙어있었습니다. 이 세가지 예를 가지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펼쳐나가보겠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가 화분을 깬 경우였지요? 그 경우에 무엇이 체벌의 동기였을까요? 그 동기는 어른에게 깨졌다는 사실이 가장 마음에 와서 닿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른이 교사라고 한다면 교사에게 그 화분이 아주 귀중한 것이였기 때문에 흥분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주관적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 한 남자 아이가 다른 아이를 괴롭혔던 경우인데 그 경우에 있어서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체 그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동기였습니다. 세 번째의 주차위반 딱지 붙은 경우는 또 다른 차원의 경우입니다. 이 세 번째 경우는 내면적인 동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규칙이지요. 여기서는 자동차를 세워도 되고 저기서는 안된다는 공동의 규칙이지요. 누군가 그것을 어긴다면 벌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세가지의 경우는 모두 인간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이 세가지 체벌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 세가지 경우의 공통점은 교육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에 있어서의 체벌은 아주 다른 차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체벌의 동기가 체벌을 당해야 되는 아이 자체에게 있다면 그것은 교육적인 체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이와 상관없이 다른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체벌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이지 교육적인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는 바로 중심에 놓여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체벌은 교육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0-7세 어린이들에게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의지입니다. 7-14세 아이들은 느낌이 중요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에게 어떻게 느낌이 나타나는가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어른을 모독했습니다. 그것을 부모나 교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어른은 '너 도대체 어떻게 한거니?'하고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너, 그분에게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려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의 말은 학령기에 있는 아동에게 상당히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물론 그 어린이들이 다른 사람을 모욕했다면 고쳐져야 겠지요. 이 경우 어른들을 통해서 어린이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낌의 영역입니다. 어른은 선으로 이야기했지만 아이는 상처를 받습니다. 어른이 아이의 의지에 작용하는 것은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학령의 아동은 7-14세 아동을 이야기하는 건데 13, 14세가 지나면 사춘기를 맞게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주제가 학령 이전의 아동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내가 유럽에서 겪은 경험이 한국과 그리 많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 사춘기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느낌의 영역을 개입하게 되면 아이들은 금방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립니다. 청소년들은 자기 내면적인 세계와 어른들이 연결되면 그 관계에서 벗어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가 약물중독과 같은 경우입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느낌에 대해 개입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고영역을 나누고 싶어하는 때입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에서 벗어나 그 아이의 감정을 건드리게 되면 아이는 어른과 거리감을 두게 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에 대해 짧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른으로써 아이들에게 의지영역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은 체벌의 동기는 어린이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날까요? 두가지 아주 재미있고 서로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이 예는 발도르프유아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두가지 예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담겨있습니다. 몇 명의 아이들이 적목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어린이가 와서 적목으로 다른 아이를 칩니다. 그 상황에 대처하는 어른의 반응을 두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사가 피

해자와 가해자를 떨어뜨려놓습니다. 맞은 피해자를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가해자 어린이를 붙잡고 '나를 따라 와'합니다. 교사가 어린이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네 손을 한 번 봐라. 네 손이 벌써 네 말을 안들었구나. 네 손을 도와주어야 겠구나' 하고는 오늘 점심에 먹을 사과를 함께 깎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우도 교사가 가해어린이와 피해어린이를 떼어 놓습니다. 그리고 피해 어린이를 위로해 줍니다. 가해어린이를 데리고 다른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데로 데리고 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놀게 합니다. 한 30분 정도 그 상황에서 가해어린이는 자유롭게 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동그룹작업(라이젠슈필)을 합니다. 그날 할 라이젠은 봄에 관한 것이였습니다. 봄에 태양이 지상에 있는 꽃과 나무를 피게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역할놀이가 가미되는데, 아이들이 역할을 맡게 되는데, 그것은 연습을 통해 역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역할을 정합니다. 그런데 태양역할을 교사가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따라합니다. 태양을 나타내는 제스츄어는 태양은 사랑과 따뜻함 등을 지상에 있는 꽃과 나무들에게 가져다 준다는 내용의 시를 낭송하면서 몸으로 표현합니다. 이 시간에 아까 친구를 때렸던 어린이가 태양역할을 맡게 됩니다. 거기에 교사는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너, 오늘 잘못했으니까 태양해'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린이는 아무 생각없이 교사가 태양을 맡으라고 한니까 아까 교사가 했던 것처럼 태양이 되어 제스츄어를 합니다.

이 두가지는 똑같은 상황에서 나타난 전혀 다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전혀 다른 반응을 한 동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교사가 반응한 것은 바로 어린이들에게 주는 그림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첫 번째 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교사는 벌써 그 어린이가 한 행위를 알고 있습니다. 아이의 손이 아이의 말을 종종 잘 안 듣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지나치게 활발하고 거칠어서 그것을 조절하기 어렵다는 걸 교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행동이 왜 거친가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어떠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체벌은 어린이가 한 행동의 원인이 어디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을 한 아이와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존엄성을 외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복수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체벌의 동기는 이 손이 말을 안들었기 때문에 이 손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끔 해서 이 손과 자신을 연결시키는 것이 동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어린이가 성숙되어 있다면 아까처럼 사고, 느낌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행동을 고치게 되지만 이 어린이는 아직 성숙되지 않은 어린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른으로써 그 어린이 옆에서 어린이를 대신해서 그 아이가 사과를 깎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 아주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얼마나 내가 어른으로서 내면적으로 어린이와 동행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든 어린이는 다릅니다. 내가 그렇게 어린이들과 동행해서 그 과정을 잘 거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음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룹에서 한 아이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어떤 아이는 아이가 유아원을 그만둘 때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떤 내면적인 동행이 일어날까요? 내가 진정으로 어린이의 동기를 이 과정을 거치면서 행위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면 나는 교사로서 완벽한 교육적 구상이 생겨서 그것을 한쪽에 치워놓고 있어도 될만큼 완벽해 질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나는 단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시적인 사건에만 집착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한 아이가 계속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교사인 나에게 화가 나는 일이 됩니다. 그 상황은 교사와 어린이들간의 관계에서 내면적인 세계가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교사와 어린이와의 근본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앞에서 어린이들의 동기가 어른들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 했었죠? 어린이들이 내면적인 과정을 거치도록 동반하는 것을 하려고 한다면 교사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어떤 어린이에게는 쉽게 열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린이들이 수수께끼로 남는 경우가 많어 있습니다. 아이들 옆에서 내가 내면적으로 동반하는 관계가 정말 어려운 때가 많은데 그 기술은 연습을 요하는 기술일 때가 많습니다. 그 기술은 내면적인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내면적인 과정을 동반할 수 있는 그래서 어린이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내면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연습을 하는 동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발도르프유아원에는 연습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사인 내가 밤에 잠들기 전에 가만히 누워서 우리반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떠올림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모든 아이가 아이 하나하나마다 오늘 어떤 일을 했는가를 떠올리며 그 아이의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러면 항상 두가지 성향이 나타나는데, 한가지는 내 감정이 들어있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럴 경우 그것을 저버리는 것이 과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도대체 그림이 잘 안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그 아이가 모래상자 옆에서 놀고 있었는데 도대체 그 애가 무엇을 하며 놀았는지 누구하고 놀았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거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과제가 놓여 있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아이에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으로 그 아이를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자면 그 아이는 모래상자 옆에서 놉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모래성을 쌓았는지, 이렇게 상상하는 이유는 내 자신을 속이기 위해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전혀 기억이 안나는 부분을 내가 상상을 함으로 해서 내 자신이 다음부터는 아이들을 잘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연습을 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내가 다시 가서 그 아이를 본다면 내면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를 보게됩니다. 그것을 다시 표현하면 명상, 집중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적으로 교사의 일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일입니다.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파트너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벌과 관련지어 이야기하면, 내가 힘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린이에게 체벌을 가한다면 동시에 내 자신의 내면적인 능력과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비인간적인 것이 됩니다. 어린이는 분명히 교정이 필요합니다(교정도, 체벌도 필요없다면 아이가 아니겠죠). 어린이는 행위의 규범을 한꺼번에 씌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사와 아이간의 개별적인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80년 전에 발도르프 교육학을 창시한 루돌프 슈타이너는 '내가 만일 어린이들에게 항상 그건 하지마, 그건 해서는 안돼, 그것은 그냥 내버려둬라는 말을 한다면 나는 교육적인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사가 완벽한 교사는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 없어서 체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도덕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표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및 토론

질문1) 앞의 이야기에서 친구를 때린 아이에게 체벌을 준 예 중에 두번째의 경우 가해자인 아이가 공동그룹작업에서 태양 역할을 맡았는데 아이가 과연 그 역할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아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런 체벌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까?

답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체벌의 예를 들은 것은 첫 번째 것과 아주 다른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는 가정이 불안정했고, 돌봐주는 사람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 어린이는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져 보지 못했던 아이입니다. 그 어린이는 다른 사람과 인간적인 관계를 나누는 것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런 것이 결핍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지요.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이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를 때리면 반응이 오지요. 반응이 온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 아이는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내면적인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를 공격적으로 자극을 합니다. 그 아이가 공격적으로 다른 아이를 자극을 해서 사랑을 못 받으면 다른 감정적인 반응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다른 아이들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리면 피해아이의 울거나 소리 지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 그리움은 원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전혀 다른 것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때 어른이 바로 어린이 곁에 서게 됩니다. 그 어른은 그 어린이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교정하려고 하는 것이 생각이나 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어떤 행위의 영역에서 교정의 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는 사랑스러운 마음이 되어 다른 어린이들에게 태양의 빛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순간 교사가 '네가 오늘 친구를 때렸기 때문에 너는 태양을 맡아야 해'라고 말했다면 그 아이는 태양의 역할을 맡기를 거부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도덕화를 시키는 말이나 생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행위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2) 저는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맡고 있는 교사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하신 경우는 어느 정도 아이들이 언어소통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의 경우인 것 같은데, 좀 더 어린 영아들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지금까지의 예는 3-7세 아이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는 영아나 유아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교사의 원칙은 행동규범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데서 영아나 유아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1살이든 2살이든 교사와 아이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입니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교육부 장관이든, 보건복지부 장관이든, 교수든지 간에 유아원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은 옳은 일이고 그른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사인 내가 교사로서 결정할 일입니다. 다른 예를 짧게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종종 체코슬로바키아를 방문합니다. 거기에서 교사들과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유아원이든 학교든 명확하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 대화를 나눈 몇몇의 교사가 있었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교사가 말하기를 '실수를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언제나 실수는 반복해서 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에서 어린이들에게 명확하게 규정된 것을 요구하는 그 규범 안에서 생활했어야 하는 것을 저항하지 못했던 것을 실수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교사로서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조금씩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하고 그 과정을 찾을 때까지 그 길을 걸어 가는 것은 인간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책임지고 있는 것을 도외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이상적이고 번지르한 이론이나 주장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많습니다(행위적 규범을 정해 놓은 것).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린이와 교사와의 인간적인 관계입니다. 얼마 전 재미있는 연구를 읽었는데 제2차세계대전 당시의 학령 이전 어린이에 대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의 학령 전 어린이들이 어른이 된 지금 그 당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표현하기를 폭탄이 떨어져서 지하실에 가서 숨었던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그 때 나는 무섭지 않았어. 나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있었거든.' 그것은 어린 아이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구상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교육구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이면서 인간적인 교육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발도르프 교육이 추구하는 핵심이며 발도르프 유아원에서 프로그램을 짜게 된다면 여기에 중심을 두고 짜게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개별적인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교사의 생활양식이 거기에 속합니다. 내가 만든 생활양식은 나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습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 변화되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컴퓨터 통신 모임방안내

21세기는 정보화 시대! 보육교사들이여 컴맹을 탈출하자.
그리고 채팅의 즐거움을 맛보자.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 천리안 통신망에 보육교사들의 모임방인 [보육교사한마당]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근무라는 보육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국의 보육교사들의 교류를 위한 장은 쉽게 마련되지 못했지만 이제 PC통신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전국의 보육교사들이 한 곳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육교사한마당에는 각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람직한 보육프로그램을 나눌 수 있는 코너와 보육수혜자인 학부모와 보육교사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란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는 정기채팅이 이루어져 온라인 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찾아가는 방법은 천리안 접속 후 GO BBSMEET → 14.학술/교육 → 5.보육교사한마당

♬ 아동캠프

애들아 캠프 가자!

정말 아이들이 주인되는 아동캠프를 위하여

· 편집부 엮음 ·

더위가 시작되면 교사와 아이들은 설레이게 시작하죠? 물놀이가 있고 캠프가 있어서죠. 이미 시작된 무더위, 올해는 좀더 색다른 캠프를 준비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때에는 '자원활동가'가 중심이 된 디딤어린이집의 아동캠프와, '민박집'을 이용한 자유로운 캠프를 진행한 중부어린이집의 아동캠프를 소개합니다. 6백명이 같은 날 이용하는 캠프장이 아닌, 아이들이 맘껏 자유를 맛볼 수 있는 1998년도 신나고 재미있는 아이들의 캠프를 기대해봅니다.

자원활동가와 준비하는 디딤 아동캠프

· 디딤어린이집 (대구) ·

<97년 디딤 여름캠프>

· 때 : 1997년 7월20일 (일)
· 곳 : 포항 구룡포 경북대학교 수련원
· 회비 : 아동 1인당 20,000원
· 출발시간 : 7월20일 오전 10시
· 도착시간 : 7월21일 오후 5시
· 준비물 : 점심도시락, 여벌의 옷(긴 옷 1벌 포함), 세면도구, 수건, 수영복 및 물놀이 기구, 돋보기, 흰 면손수건 1장
· 일정 :

	일 정	내 용
20일 10:00~	출발준비	자원활동가와 아동 조 짜기, 이름표 달기
10:30~	출발	차 안에서 노래자랑, 점심식사
12:30~	도착	짐 정리
14:00~	물놀이준비	간식
15:00~	물놀이	각 조별로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 자체준비, 진행 (조개 줍깅이 줍기, 비누방울 놀이, 오래그림 그리기 등)
16:00~	씻기	
17:00~	북, 장구배우기	인문대 독문과 학아소모임에서 준비, 진행
18:00~	조별시간	조깃발 만들기, 조이름 짓기, 장기자랑 준비
19:00~	저녁식사와 이야기	
20:00~	인형극 관람	사회대와 인문대 소모임에서 준비
21:00~	극기훈련	교사회, 영예자원활동가 준비, 진행
22:00~	캠프파이어	인문대 소모임 준비
22:30~	씻고 취침	
23:00~	디딤과 자원활동가 상반기 평가와 뒷풀이	교사회 준비
21일 08:00	기상	
08:30~	아침체조	
09:00~	세수하고 이야기	
10:00~	아침식사	
11:00~	숲속 관찰	조별로 진행(돋보기로 숲속 관찰, 흰 손수건 숲을 들여다)
11:30~	간식	
12:30~	조별시간	산책, 사진 찍기
13:30~	점심식사	
14:00~	뒷정리	
14:30~	대구로 출발	

1. 디딤 캠프의 시작

지난 95년 여름, 아이들을 위한 현장체험교육의 진행과, '디딤'을 구성하고 있는 자원활동가·후원회원·부모님의 함께하는 자리의 의미로 1박2일의 캠프가 출발하였다.

위의 2가지 의미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아동 교육프로그램, 부모교육 및 간담회, 자원활동가와 후원회원과의 디딤사업의 공유 프로그램이라는 3가지 주제를 담아내는 방향으로 다소 방만하게 진행되던 디딤 여름캠프는 97년부터 아동중심의 현장교육캠프, 그리고 디딤 운영의 또다른 주체인 자원활동가의 상·하반기 활동평가의 자리라는 2가지 의의를 중심에 놓고 여름·겨울 캠프를 1년에 2회 진행하였다.

2. 준비와 진행

95, 96년 캠프는 그 성격상 교사회를 중심으로 부모회, 자원활동가 모임 3단위에서 서로의 역할분담과 교류로 진행되었다. 부모회를 통한 여름캠프에 대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교사, 부모회,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준비, 진행되었다.

이후 97년부터는 캠프주체 교사 1인과 자원활동가 대표자로 구성된 캠프준비모임을 통해 캠프에 대한 평가와 부모님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내용, 구체적 프로그램, 기획을 마련했으며 아동프로그램은 자원활동가, 디딤·자원활동 평가회 준비 및 실무는 교사회로의 역할분담 속에서 준비하였다.

이후 1박2일의 캠프진행에 있어서, 전체 일정 및 식사를 비롯한 제반 실무는 교사가 진행하였으며, 자원활동가들을 아동과 1대1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아동 연령대와 소모임별로 조로 나누어 아동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자원활동가의 역할에 대한 진행은 자원활동가 대표자모임에서 총화하였다.

98년 2월 수안보 온천으로의 겨울캠프는 유아를 중심으로 교사 1인과 사회복지시설연구회의 자원활동가들이 준비·진행했으며, '경북대 새내기 새로배움터'에서 겨울캠프를 진행하면서 각 단대별 소모임 소개 및 인사프로그램 결합도 경북대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했다.

3. 평가

어린이집 내에서 진행할 수 없었던 자연 속에서의 다양한 현장체험교육의 진행과 1박2일의 독립된 공동체 생활교육 등의 캠프의 교육적 의미를 생각할 때 그 준비와 진행에 있어서 많은 것이 요구된다.

캠프를 위한 최적의 자연환경과 특히 영아를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숙박시설, 캠프의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무엇보다 거의 한달의 준비과정과 캠프를 진행할 책임단위를 꾸려 내는 것들...

많은 것들이 요구되지만 다행스럽게도 디딤과 함께하는 많은 경북대 자원활동가들과, 바다와 산이 있는 구룡포 경북대 수련원 시설이 있기에 자연 속에서 안전한 1박2일의 캠프를 지금까지 진행할 수 있었다.

지난 겨울 처음 진행된 1박2일의 겨울캠프는 추운 날씨로 인하여 영아를 제외한 유아캠프로 진행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후 더욱 체계적인 준비와 내용성 마련을 통해 디딤만의 또다른 유형의 겨울캠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갯벌에서 뒹구는 중부 아이들

이미영 · 인천 중부어린이집

배낭 메고 모자 쓰고 신나게 캠핑 간다.

야호! 신나는 캠프다. 아이들은 일찍부터 와서 떠들썩하다. 한시도 쉬지 않고 떠드는 아이들 마음속에는 아마도 자연에 나가 신나게 뛰어 놀며 자연을 만끽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것이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거기 가면 위험해." 하며 아이들의 자유를 빼앗았다. 하지만 우리 중부의 아이들은 이날만큼은 이 세상의 어떤 아이들보다 행복하다(왜냐고요?자유로우니깐).

엄마가 정성껏 싸주신 맛있는 김밥, 갈아입을 옷등을 배낭에 챙겨 차에 오른다. 매년 중부는 강화에 있는 '함허동천'이라는 공기 좋고, 계곡이 맑은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

차창 밖으로 내다보이는 푸른 들녘과 하늘을 찌를 듯한 키 큰 나무들, 가끔씩 드리는 아름다운 새들의 지저귐을 들으며....

매년 친손녀, 손자처럼 맞이해주시는 민박집 할머니를 뵐 때면 나는 벌써 가슴에 따뜻함을 느낀다. 우리 아이들은 그림책에서나 보았을 아궁이, 가마솥, 펌프... 등 흙냄새 가득한 앞마당... 아하 참 좋다.

이런 느낌도 잠시,

개구장이들은 배낭을 내려놓은건지, 집어던진건지... 집앞 개울로 나가 송사리를 잡는다. 가재를 잡는다 하며 야단이다.

어떤 시간에도 어떤 순서에도 얽매이지 않는 우리 모두는 마냥 즐겁다.

김밥을 먹는등, 마는등 아이들의 마음은 벌써 저 넓게 펼쳐진 백사장 푸른물이 넘실대는 바닷가에 가 있다(함허동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동막해수욕장').

언제 뛰어들었는지 물 속에 몸을 담그고 신이 나서 허프허프하며 물장구를 치는 아이, 수영솜씨를 뽐내는 아이, 무서워 발발 떨고 서있는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즐겁다.

어느 틈엔가 서서히 바닷물이 빠지고 알몸을 들어낸 갯벌은 아이들의 또 하나의 보석상자. 아주작은 구멍이 나있는 곳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두 손을 갈고리처럼 만들어 있는 힘껏 흙을 떠내면

"야! ~게다."

"애들아! 이리 와봐."

"게 잡았어."

"어딨어, 나두 보여줘."

뭐가 갯벌이고 뭐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갯벌 위에서 뒹굴며 노는 중부 아이들. →

게를 잡은 아이는 천하를 얻은 듯 기뻐하며 "별거 아냐"한다. 갯벌에서 뛰노는 아이들은 영락없는 오뚜기.

이리찌~익,

저리찌~익,

미끄러지고 빠지지만 시커먼 진흙을 친구들 얼굴과 온몸에 서로 발라주고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는다. 피부가 거칠다구요. 중부로 오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진흙팩 한번 받아보시면 백옥같은 피부는 눈깜짝이라구요. 온몸은 진흙투성이가 되고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돌아와 커다란 대야에 보석들을 내려놓고는 마냥 신기하다.

아이들은 지치지도 않는다.

할머니가 정성껏 따다 삶아주신 옥수수를 뚝딱 해치우고는 잠자리, 여치, 메뚜기, 콩벌레, 나비...가 춤추며 놀고 있는 풀숲을 향해 돌진. 자기 키보다 몇배나 되는 잠자리채를 메고도 조금도 힘들어하지 않는다. 잠자리들은 우리 아이들을 환영이라도 하듯 더 많이 모여들어 낮게 날아다닌다. 손만 뻗으면 닿을 듯한 잠자리가 왜 이렇게 안잡히는지...

벌써 지친 아이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앉아있다.

그것도 잠시, 이번엔 잠자리 말고 메뚜기를 잡아야지!! 하고는 자세를 낮춰 풀숲은 헤친다.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뱃속에서 요동을 치면 민박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모기와의 전쟁을 치룬다. 고요히 잠든 아이들은 오늘 하루의 모든 즐거움을 하나, 둘 아로새기기나 하듯 작은 입을 씨~익벌려 웃음 짓기도 하고, 다리를 번쩍 들어 친구를 걷어차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잠든 모습은 모두 요정같다.

다음날 아침 나보다 먼저 눈을 뜬 녀석들이 소근소근 옆친구를 깨우면, 부시시 눈을 부비며 캠프 둘째날은 시작된다. 아침밥이 준비될 때까지 우리는 마니산에 오른다. 정상까지는 갈 수 없지만 높은 곳에 올라 "야~호." "엄마, 아빠 사랑해요."하고 큰소리로 외쳐본다.

우리 아이들의 외침이 푸른 하늘에 넓게 퍼지듯 푸른 꿈도 넓게 펼쳐지길 빌며....

산에서 내려온 아이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수영복으로 갈아입고는 날 잡아끈다. 이제 제법 컷다고 물을 뿌리며 공격도 하고, 편을 갈라 물싸움을 하기도 한다. 돌을 들추며 가재를 찾던 아이들, 어렵게 잡은 송사리를 손에 잡고 마냥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코끝과 등판이 빠알갛게 익어갈 때면 어제와 오늘 자연과 함께 어울려 뛰놀던 중부아이들의 1박2일의 캠프도 막을 내리게 된다.

돌아오는 길에는 '광성보'와 '초지진' 등의 유적지를 둘러보며 우리 옛조상들의 지혜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틀동안 아이들은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힘도 들었지만 함께하는 즐거움과 친구의 소중함을 느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품을 떠나 지낸 이 소중한 시간들이 중부아이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지길 바란다.

**소중한 시간을 초계어 예쁜 글을 보내주신 이미영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중부어린이집 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의 참 아이사랑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98 함께 만드는 좋은 어린이집」 아이디어 공모

■공모대상

어린이집

■공모부문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신청서 교부

전국 삼성어린이집 / 삼성복지재단 어린이개발센터 자료실

6월 1일부터 7월 31일 (9:00~16:00)까지 합니다.

■서류접수

접수시한 : '98년 8월 14일 (금)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함

접수처 : 삼성복지재단 어린이개발센터 공모담당자

주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150 삼성생명빌딩 16층 우100-716 TEL. 02)259-7874, 6

■발표 및 지원금

'98년 9월중 선정결과 개별통지

지원금 : 대상 - 500,000원 1명 우수상 - 300,000원 2명

장려상 - 200,000원 3명 가작 - 100,000원 5명

■기 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된 작품의 저작권은 본 재단이 소유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상작은 '98년 어린이개발센터 학술대회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삼성어린이집 연락처〉

서울 (선릉) 539-4068, (고척) 839-0667, (이대앞) 3785-2478, (서소문) 753-3640, (상계) 933-5147, (양천) 648-3272, (신당) 233-6925, (상봉) 434-0191

부산 (양정) 852-4233, (수정) 465-3214, (사하) 261-4626

전주 (완산구) 87-2035, (덕진구) 212-4354

인천 438-0822 / **수원** 217-6084 / **안양** 47-9693 / **성남** 722-1815 / **청주** 271-1341 / **대전** 253-2285 / **대구** 255-7850 / **광주** 228-1340 / **울산** 65-1390 / **마산** 48-7156 / **구미** 458-5255 / **제주** 24-4615

유아체육

유아기 신체활동의 중요성

손현민 · 아동능력개발연구소(ICAD) 교육연수실장

요즘 지역마다 하나쯤은 있는 것이 체육센터다. 미리 신청하지 않고는 회원이 되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좋으며 회원가입 신청자들이 많아 추첨까지 해야 하는 정도이다. 이러한 운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은 아이들에게도 대한가치에서 많은 교육시설이 유아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고 있다.

교육시설에서 신체활동을 할 때는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까? 이 시기에 실시되는 체육의 목적은 어디 있는 것인가?

전통사회에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자연은 그 자체가 학습의 장이자 놀이터였다. 계절에 따라 여름에는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맑은 물과 공기를 마음껏 들이켰고, 겨울에도 추운 줄 모르고 밖으로 나가 곱은 손을 호호 불며 한껏 호기심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시간은 흘러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된 지금의 아이들은 불행히도 그 시절의 풍요로움과 자유를 누릴 기회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 마음껏 뛰어다니며 누렸던 산과 들의 흙냄새와 풀 냄새는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는 포장되고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갖가지 대중매체들은 아이들을 TV 앞에 붙잡아 놓았고 제도교육은 그나마 있는 시간마저 학원으로 아이들의 발길을 돌리고 있다. 급기야 자연스럽게 행해지던 놀이는 일부러 돈을 들여 학원이나 체육센터에 보내야만 해결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사회적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덩치는 커졌는데 체력은 형편없다는 조사 결과들이 발표되고 운동부족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981년과 1991년 서울시내 초등학교 6학년 남자의 경우 100m 달리기는 17.65초에서 18.22초로, 던지기는 28.97m에서 27.04m로 기록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만 어린이도 전체 어린이의 12-1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몸무게가 표준치의 150% 이상인 고도비만 어린이의 경우 78.1%가 지방간, 고지혈증 등 합병증을 갖고 있다는 임상실험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각종 성인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져 40대의 사망률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지만 굳은 결심 끝에 시작한 운동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한다. 결국 무슨 무슨 다이어트니 하는 건강 보조제에 손쉽게 의존하게 되지만 도움을 받기 경우보다는 별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부작용에 시달리는 경우가 더 많다.

흔히 성인이 되어 건강이 위협받고 나서야 비로소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그 중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적당한 운동'이다. 그러나 대부분 한 달도 되지 못해서 싫증, 또는 시간 부족, 부상 등의 이유로 운동을 포기하게 되는 것을 보면 적당한 운동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시간이 없고 힘들고, 흥미나 소질이 없기 때문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운동은 습관이다. 운동을 입신양명의 수단이나 역사적 사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힘들게 할 필요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재미있고 만족을 얻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건강을 목적으로 또는 사교를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흥미가 없으면 재미없고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땀이 나고 숨이 가빠지는 것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노동'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인위적으로 좋게 생각하려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여기에서 유아체육의 필요성 중 하나를 찾을 수 있다.

초기경험의 중요성

어린 시절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체활동을 왕성하게 하지 못한 아이들은 대부분 성인이 되어서도 소극적 신체활동을 하게 되며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어른이 되어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신체적 기능습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며 포기하게 된다. 실제로 여자 대학생들은 70% 정도가 기본적인 운동기능 발달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스포츠를 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뛰고, 달리고, 던지고, 받는 기능이 익숙지 않은데 즐겁게 운동에 참여할 리는 없다. 신체적인 능력의 발달 말고도 더욱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것에 있다. 이런 점을 잘 설명해주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문호가 개방되어 서양문물이 들어올 무렵에 있었던 일이다. 어떤 외국인들이 테니스를 즐기고 있었는데 마침 그 옆을 지나던 어느 양반이 혀를 차며 "이렇게 햇빛이 내리쬐는데 힘든 일은 아랫사람을 시킬 것이지." 하더라는 것이다.

될 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또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등의 옛말은 아이들의 신체활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들어맞는다. 어린 시절의 습관이나 경험이 전 생애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옛말 뿐 아니라 여러 연구들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체육교육의 현실

그러면 현실은 어떤가? 최근 밝지 못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 그나마 싹트기 시작했던 아버지들의 가정이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제도교육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교육과정에서 자꾸만 신체활동에 대한 부분을 감소시키고 있다. 교육과정 개편때 마다 체육교과의 시수를 감소하려는 이와, 이를 저지하려는 이들이 부딪히곤 한다. 혹 그것이 학습지향주의에서 나온 것이라면 대단한 판단착오이다. 왜냐하면 국·내외의 연구들을 보면 신체적으로 왕성한 활동은 신체적 능력 뿐 아니라 정서적, 인지적, 도덕적 등 현재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대부분의 영역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체육은 1주일에 1회, 약 30-50분 정도이며 이는 유아들의 신체 발달, 체력 발달 또는 유아들의 체육 활동에 대한 요구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체육을 전공한 교사들은 시설의 부족, 과밀학급, 유아의 특성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교육내용은 아동의 발달을 고려한 것이 아닌 기능위주의 운동능력 습득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담임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체육은 반대로 아동의 신체적 특성과 다른 측면과의 상호연관성을 파

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재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교실수업과 커다란 차이를 두지 못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노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여교사의 비율이 많은 탓으로 우선 신체적으로 활발한 행동을 유도하기 어렵다. 또한 정작 교사 자신도 신체교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충분한 교육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젊은 교사들은 아이들과 함께 뛰어 놀기라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아이들과 함께 신체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상황이 이쯤 되고 보니 아예 유명무실한 체육 시간을 없애버리자는 말까지도 나온다.

취학전 아동이나 초등교육기관에서의 신체활동은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구조 자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결국 어린 시절 운동에 대한 긍정적 경험이나 습관은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래서 이 시기에 다양한 운동을 통한 자극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모와 교사의 역할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라고 여겨진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이 되는 구성 단위이고 비교적 지속적이며 구속력이 강하다. 이른바 가정 환경은 아이가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의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은 아닌 듯 싶다. 아동은 가정 특히 부모에게서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건강이나 신체적 능력에 대한 중요한 인자들을 이어받게 된다. 선천적인 인자들은 아이를 건강한 삶으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아무리 유전적으로 건강에 이익이 되는 인자를 타고났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실제로 건강한 삶을 누리지 못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후천적인 습관이다. 당연히 그것 또한 부모에게서 이어받는 것이다.

보육시설은 특성상 좀 더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하게 된다. 어떤 경우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교사와 보내게 되는 경우도 있다. 교사라기 보다는 양육자의 개념이 더 적합할지도 모른다. 물론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다.

흔히 자녀를 교육기관에 보내 놓고 모든 교육은 교육시설과 교사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위험천만의 생각을 가진 부모들이 있다는 소리를 현직 교사를 통해 듣곤 한다. 제대로 된 시설과 교과과정, 교사들을 통한 교육의 질은 가정보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필자는 그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가 점점 복잡하게 되면서 교육시설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다.

교육시설에서 교사가 처리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다. 체육수업 관계로 교사들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담임 선생님들은 가능한 그 시간을 할애하려고 노력하지만 아이들은 잠시라도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곤란해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만큼 교사들의 업무는 과중하다 할 정도로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미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선생님들에게 무엇을 요구한다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은 책임지는 것은 결국 부모와 교사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좀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자기 계발에 힘써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빛날 소중한 재산을 남겨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 선생님들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기란 힘든 일이다. 다음에 나오는 프로그램은 신체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 본 연구소에서는 신체활동을 6개 영역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야기 동작은 그중 하나이다.

이야기 동작 프로그램

이야기 동작 프로그램이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상황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하여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한 동작의 신체활동을 통해 근력, 유연성, 심폐 지구력 등의 체력적 요소와 운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기본기술, 그리고 지각 발달, 운동감각 신경발달, 게임, 율동 등을 복합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다음 이야기는 아동들이 탐험가가 되어 정글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 형식으로 꾸민 만 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일부로써 음악과 함께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실시해보자.

제 목 : 정글 이야기 I

이야기 1 〈수풀 헤쳐 나가기〉

탐험가가 정글을 탐험하고 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헬리콥터가 있는 헬기장을 향해 정글을 헤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동 작 : 팔은 수풀을 헤치듯 머리 위에서 나아가는 다리 뒤쪽으로 뻗고 무릎은 높이 올려서 나가며 팔과 시선은 반대 방향이어야 한다.

발 달 : 종아리 근육, 어깨 근육 스트레칭

도 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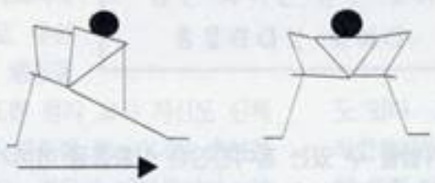
이야기 2 〈낮은 자세로 정글 통과하기〉

그런데 정글이 너무 깊어서 몸을 낮춰 기어가야겠어요.

동 작 :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로 몸을 최대한 낮추어 옆으로 이동하며 발은 무릎보다 바깥쪽에 위치한다. 좌, 우 둘러보기, 땀 닦기

발 달 : 다리 근육 스트레칭

도 해 :



이야기 3 〈징검다리 건너기〉

정글을 빠져 나와서 냇가에 도착한 탐험가는 징검다리를 건너게 되었어요.

동 작 : 양발을 바꾸며 또는 한발로만 뛰어서 건넌다.

발 달 : 운동기본기술(호핑-깨끔발, 점핑)

도 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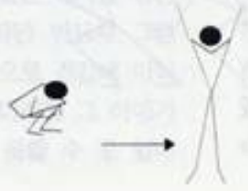
이야기 4 〈사자가 나타났다〉〈고슴도치 스트레칭〉

냇가를 막 건넜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를 피해서 바위도 뛰어 넘고 언덕도 굴러 내리며 도망가던 탐험가는 사자가 보지 못하도록 큰 바위 뒤에 몸을 아주 작게 그리고 천천히 움츠려 숨었다가 사자가 지나가자 일어서서 기지개를 폅니다.

동 작 : 뛰어 넘기, 구르기, 고슴도치처럼 최대한 작게 몸을 만들었다가 최대한 크게 편다.

발 달 : 운동기본기술(달리기), 민첩성, 협응력, 전신 스트레칭

도 해 :



이야기 5 〈바지 걷기〉

헬기장을 향해 달려가다 강가에 다다른 탐험가는 강을 건너기 위해 바지를 걷기 시작합니다.

동 작 : 한쪽씩 발목부터 바지를 천천히 걷어올리는 동작을 실시하면서 균형을 유지한다.

발 달 : 평형성

도 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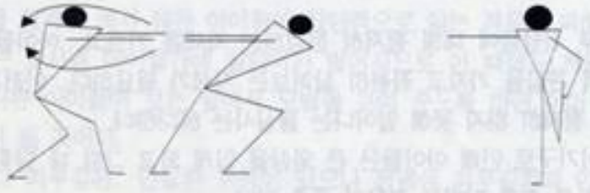
이야기 6 〈헤엄치기〉〈악어의 공격을 피해라〉

팔을 개구리 수영하는 것처럼 옆으로 저으며 강을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악어가 나타나 발을 물려고 해요. 탐험가는 재빨리 공격받는 발을 올려 악어의 공격을 무사히 피했어요. 살았구나. 한숨을 크게 쉬고 다시 물을 저어 가는데 악어가 이번엔 다른 쪽의 다리를 물려고 해요. 어떡하지요? 재빨리 공격받는 반대쪽 발을 올려 악어의 공격을 무사히 피했어요.

동 작 : 상체를 펴고 공격받는 다리를 몸(엉덩이)에 최대한 붙이고 한 손으로는 발목을 잡고 다른 손은 균형을 잡는다. 반대 발도 실시한다

발 달 : 대퇴 사두근(허벅지 근육) 스트레칭, 평형성

도 해 :



** 정글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 호에 마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능력개발연구소(ICAD)는 유·아동의 움직임을 통한 신체활동영역을 다루는 연구기관으로서 교육청 직무연수, 연합회연수, Workshop, 학술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유아신체교육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현재 상반기 교사연수는 끝났고 하반기 교사연수를 계획중이다.

주소 : 서울 성북구 정릉 2동 966-113 정릉빌딩 2층

전화 : 02)911-7508, 팩스 : 02)915-8578

시설내 건강관리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설선영 · 늘푸른어린이집 교사

늘푸른어린이집은 영아보육시설로, 간호사 2분이 10년 넘게 운영해오고 있는 시설이다.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의 건강관리를 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내용들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이 지면을 마련하였다. 다시 한번 어린이집 환경과 건강관리체계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일반적으로 건강이라 하면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심신이 모두 완전한 상태를 말한다."

어린이집에서의 건강관리라 하면 대단히 광범위하지만 여기에서는 포괄적이면서 실제로 보육교사들이 관찰 주의해야 할 건강관리의 간단한 몇가지의 이야기를 해보면 우선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등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1. 외부적인 요인

교사는 어린이집 내부 시설물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는 자세를 기르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안전관리는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이를 철저히 하지 못해 일어나는 불상사는 허다하다.

특별히 놀이감과 놀이기구로 인해 아이들은 큰 외상을 입게 되고 그럴 때 당황한 나머지 응급처치를 잘못했을 때는 더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목재로 된 완구들은 나무결을 잘 살피고, 쇠붙이로 된 완구들은 날카로운 부분과 녹이 난 부분, 나사가 풀린 곳을 살피는 것과, 프라스틱제품들은 이음새 연결을 잘 살피고 가구의 모가 난 부분들은 교사가 안전하게 스치로폴이나 기타의 것으로 보호해 주면 좋겠다. 이 모든 것들은 교사들이 익히 알고 있고 실제로 생활화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도 될 부분이라 생각된다.

또한 식사시간에 일어나는 일로는 숟가락과 젓가락(포크), 같은 음식물, 뜨거운 국물과 물 등은 실제로 큰 사고의 원인이 되며, 어느 어린이집에서 포크로 아이가 눈을 찔린 경우와 음식물 국물이 눈에 들어간 경우, 뜨거운 국물로 화상을 입은 경우는 자주 일어나는 어린이집 안전 건강 관리 유형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식습관 예절과 교육으로 사전 예방할 수 있으며 매 식사 전에 다시 한번 주지시킨다.

2. 내부적인 요인

우선은 선천적인 질환을 가진 경우와 후천적인 질환들에 대해서 아이가 어린이집에 입원할 때 조사하여 둠으로써 각 아이들에 대한 좋은 자료로 삼고, 이를 토대로 관찰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

선천적인 질환의 경우는 가계의 유전과 전염성 등의 간단한 자료와 어린이 예방접종의 유무, 전염병 발병시기의 예방접종, 또한 어린이집에서의 단체 예방접종 실시 방법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교사는 알고 있어야 하며 각 아이들에 대한 평소의 건강상태를 잘 관찰하여 매일 매일의 아이상태를 체크하는 것은 바람직한 교사의 태도이다.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은 감기질환은 열과 기침, 콧물, 식욕부진 등을 동반하고 심하면 열성경련을 일으키기도 하는 간단하게 생각하는 질환일 것 같지만 그냥 쉽게 넘길 수 없는 질환이라 할 것이다.

환절기에 어린이집에서는 보통 10-20명 정도의 어린이가 감기로 인해 약을 먹고 이 아이들은 또 건강한 아이들의 무리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이들의 특성상 누워있질 못하므로 이들은 여러 증상들이 심해도 잘 뛰어 논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해서 더욱 심하게 앓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악순환을 거듭 하다 보면 일년 내내 어린이집에서는 감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때 교사들은 건강한 아이들과 분리시켜 이들을 쉬게 하고, 육체적인 활동을 하기보다는 안정을 취하게 하고 정적인 놀이 중심이 되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때 앓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함께 모아서 적절한 보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더욱 치료의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여름철에 흔한 배탈, 설사, 장염 등도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특별히 수인성으로 오는 질환은 식수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많은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앓는 경우를 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약을 먹일 경우에는 교사와 아이들간에 실랑이가 벌어지므로 이 때에도 제일 먼저 약을 잘 먹는 아이를 선정하여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모범을 보여 주도록 하면 아이들의 심리상태를 이용한 효율적인 투약이 될 것이다.

그밖의 외상이나 피부질환, 안질환 등등이 있으나 전염성 피부질환과 안질환, 전염력이 있는 질환은 학부모와 상의하여 치료 후에 어린이집에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외상이 있는 아이는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도와줘야 할 것이다.

3. 환경적 요인

요즈음 신설된 어린이집은 좋은 환경을 갖춘 곳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현실적으로 완전한 시설을 갖춘 곳은 거의 드물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아이들에게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우선 보육시설에 자주 환기를 시키고 아이들의 신체, 의복, 소지품, 신변 주위를 청결히 하여 불결한 것은 입에 넣지 말고, 가능하다면 현재 앓고 있는 아이들은 건강한 아이들과 격리시켜 따로 모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양자 모두에게 적합한 환경이 될 것이며, 어린이집에서의 공동식사는 철저하게 관리하여 여름철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예방과 수인성 질환에 유의하여 반드시 끓인 물로 식수를 사용토록 하고 식기는 소독을 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일반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적어 보았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어린이집에서의 건강관리란 안전사고와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안전관리만 잘 할 수 있다면 어린이집에서의 건강관리의 반은 다 한 셈이다.

영아부분은 지면상 다루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 실제로 아이들의 생각이란 단순하고 우발적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고 이 사고로 말미암아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교사들의 책임은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0-30명의 아이들을 교사 혼자서 보육하는 상황에서 이 모두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 상호간에 일어나는 몸싸움으로 빚어지는 갖가지 외상으로 인해 학부모와의 신경전은 교사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로 등장하기도 한다.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각종 위험 속에서 교사는 훌륭한 관찰자로서의 보호와 교육을 다할 때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아이들은 교사의 문 밖만 벗어나면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힘들지만 우리 모두 사랑이 되어 눈을 크게 뜨고 우리 눈 안에 아이들 모두를 품어보자.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크게 줄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어린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최근 98년 1~3월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4.3%나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 어린이 교통사고는 2,56건으로, 지난해 5,23건보다 2,67건(48.2%)이 줄어들었다. 사망자의 경우 78명으로, 지난해 140명에 비해 62명(44.3%)이 감소했다.

부상자 수도 크게 줄어 지난해에는 5,483명이 다쳤으나 올해는 2,884명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이승석 사무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강화된 어린이 교통보호 대책과 IMF로 교통량이 크게 준 것도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킨 한 원인으로 평가됩니다."라고 분석했다.

서울신문에서

어린이날 행사 풍경

내 딸과 함께 한 어린이날 행사

강영신 · 수원, 신나는 어린이집 교사

5월 6일 이야기 나누기 시간, "어제 어린이날이었는데 친구들은 뭐했어요?" "엄마랑 백화점에 갔어요. 엄마 아빠랑 집에 있었어요. 오빠랑 엄마랑 누나랑 놀이동산 갔다왔어요. 엄마가요 말 잘 듣는다고 인형 사주셨어요. 아빠가요 맛있는 피자 사주셨어요..." "얘들아, 선생님은 어제 선생님 딸 경민이하고 어린이날 행사하는데 다녀왔다."

'수원 어린이 한마당'은 수원 시내 12개 단체들이 모여 아주대 노천극장에서 치뤄졌다. 5월 2일 인형극 공연을 시작으로 5월 4일 전야제, 5월 5일 어린이한마당으로 이어졌다.

5월 2일은 인형극 「혹부리영감」, 「쥐신이의 신랑감」을 보여주었는데 조명이 주는 신비감과 멋진 음악이 어우러져 5월 5일 공연때도 많은 인원이 모였다. 4일 전야제는 기념식, 영화 상영, 슬라이드 상영, 대동놀이로 이루어졌다. 본 행사인 5월5일 어린이한마당은 공연과 기념식, 놀이마당, 배움마당, 전시마당, 인형극 공연과 대동놀이로 마감을 하였다.

5일날은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어른이 봐도 시기한 과학실험과 종이로 접는 예쁜 종이 접기, 곳곳에 이어진 페이스 페인팅의 줄, 널뛰기는 아이보다 어른들이 더 재미있어 했고, 뜻대로 굴러가지 않는 굴렁쇠 굴리기, 여러 명이 함께 넘는 줄넘기 놀이, 카세트 곽으로 만든 비석치기, 모래나 콩밥으로 만든 팔주머니 던지기, 소원을 빌어 수레에 달고 꽃수레 타기, 장단도 잘 모르면서 두들기는 풍물의 소리로 가득 찼다. 그늘이 많이 없어 아쉬웠고, 어린 연령의 아동들이 직접 참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으면 했다. 그런 공간에 물놀이와 모래놀이 공간이 있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다.

으레 어린이날 하면 비싼 선물공세와 발 디딜 틈도 없는 놀이동산, 비싼 음식점... 이런 것으로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는 것 같다. 올해의 어린이날은 내게 남다른 의미의 어린이날이었다. 그것은 내가 내 아이와 함께 참석을 했기 때문이다. 행사를 주최한 단체의 일원이기도 하고 구경을 간 시민이기도 했다. 구경하면서

자리를 뜰 줄 몰랐던 내 아이를 보면서 난 다른 느낌을 받았다. 내게 어린이날을 하루 더 준다면 난 내 아이와 함께 내가 있는 어린이집에서 놀고 싶었다. 남편이 다니는 직장도 구경시켜 주고, 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함께 놀고 싶다. 그리고 내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점심도 만들어 먹게 하고 싶다.

행사의 주최자들 아이들도 어린이날을 잘 보냈을까?

제2회 구로 어린이 큰잔치

김진숙 · 서울 남부보육교사회 회장

5월 5일 하루만이라도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들에게 창의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맑고 밝고 씩씩하게 마음껏 뛰어놀수 있게 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어린이날 행사를 통해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서로 돕고 살아가는 마음,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 구로를 사랑하는 마음,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린이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작년에 이어 제2회 구로 어린이 큰잔치를 열게 되었다.

참가단체는 구로구의 사회단체들로 구로시민센터,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구로청년회, 서울남부보육교사회, 서울진보청년회, 여성복지회관(서울여성노동자회), 좋은 이웃들이다. 1회때보다 참가단체가 많아졌다.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전교조 남부지회나 공부방연합회등 어린이 관련단체의 참여가 적은 것이다. 7개 단체의 준비주체들이 모여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사업계획, 홍보, 재정, 후원조직 등의 일을 한달 전부터 시작하였다.

행사를 알리는 것은 조금 늦게 되었지만 효과가 컸다. 포스터, 전단, 현수막의 홍보물 외에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홍보 요청을 하였는데, 교실마다 전단이 붙었고 가정통신문이 나간 학교도 있었다. 사회단체에서 그동안 환경행사 등을 하며 학교와 관계를 맺어왔고 작년 행사를 통해 좋은 반응을 얻은 결과다.

재정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나오는 구로구청의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구청 지원금은 선거 관계로 포기하려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신청서를 냈고, 힘들겠다는 답변에 중앙 선관위에 질의서를 내서 구청장의 행사참여만 않으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 답변서를 구청에 제출해서 행사 2-3일전에 결정되었다. 그리고 지역의 의료원, 치과의사회, 약국 등에서 후원을 해주어 어려움 없이 치룰 수 있었다. 언제나 지역의 일에 아낌없이 후원을 해주는 분들께 감사하다.

준비위원회가 홍보와 재정마련 등을 위해 발로 뛰어다닐 때 참가단체의 회원들은 각자가 맡은

마당의 세부계획을 세우고 어린이들이 좀더 알차고 재미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하였다. 행사내용은 놀이마당, 유아마당, 미술마당, 우리 춤과 풍물마당, 우리 문화 배움마당, 나라사랑마당, 동요부르기 마당, 전시마당, 미니 마라톤 등이다. 마침마당으로 택견 시연과 구로구 역사알기 OX퀴즈도 있었다. 어떤 내용의 마당을 할지를 결정하는데 어린이날의 의미를 살리고 어린이를 위한 행사가 되기 위해 고민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며 결정하였다. 1회때와 큰 틀은 변한 게 없지만, 대회형식의 마당은 사라지고 상품을 주어야 한다거나 참여유도를 위한 경쟁심리를 유발시키는 것도 사라졌다. 그래도 마치고 나면 조금씩 결점이 보인다. 장터의 품목도 점검했으면 싶고, 마당배치를 할 때 아이들 동선을 생각했으면 싶고, 물품을 넉넉히 준비했으면 싶다.

보육교사회는 미술마당과 우리 춤 마당을 맡았다. 미술마당의 경우 대부분 유아들이 참가를 하는데(다른 마당은 대부분 초등학생위주이다) 유아놀이마당은 따로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 왔다갔다 하기에는 힘든 거리다. 유아마당을 한데 모아 유아들도 사람들에게 치이지 않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5월 5일. 일찍부터 어린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친구들끼리 손잡고 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다. 신도림 가로공원은 순식간에 꽉 찼다. 그래도 끊임없이 들어오는 사람들.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4천명이 넘을 거라는 것은 공통 된다. 돈도 안들고 여러 놀거리가 있고, 쉴 수도 있는 공간이 있는 곳으로 안성맞춤이지 않았을까. 행사가 끝나도 돌아가지 않고 그늘에 앉아 담소를 즐기는 가족들도 많았다. 지금도 포화상태인데 점점 더 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거나 공간의 분리도 생각해 봐야할 문제다.

서울 남부보육교사회만 해도 자활들까지 포함하여 50여명이 참여하며 힘을 쏟았던 행사다. 그만큼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클 거라 생각한다. 어린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모아지고 모아져 마침내 폭발하는 자리로 어린이 큰잔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새로운 출발

'새싹들의 방'과 '세쌍둥이'와의 만남에 대하여

박은아 · 새싹들의 방 · 세쌍둥이 통합어린이집 교사

1991년 11월에 세쌍둥이의 죽음을 통해 세쌍둥이어린이집이 만들어졌고 부모 · 교사 · 자활 · 설립하신 분들 모두 열심히 어린이집을 꾸려왔다. 아이들도 씩씩하게 잘 자라고 그렇게 7년의 세월이 흘러오던 1997년 어느 날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세쌍둥이어린이집을 살리는 길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변화, 혁신이 필요했고 그때 마침 인천지역에서는 통합논의가 시작되었다.

요지는 현재 남아있는 비영리어린이집 4군데를 모두 합쳐서 모범이 되는 좋은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모범을 보이자는 취지에서 말이다. 그러나 근 5개월의 논의 끝에 하나로의 통합은 좌절되었고 영아전담인 '새싹들의 방'과 '세쌍둥이'를 통합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다. 통합하여 좀더 큰 시설로 만들어 영아전담으로서의 명성(?)을 갖는 것. 통합을 결정하고 통합논의를 시작하면서 세쌍둥이어린이집 공간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잠시 휴원하게 되었고 3달 정도 발로 뛰어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현재 새싹방 자리에 시설 재투자를 하기로 결의하고 98년 1월말에 공사를 시작하여 2월에 통합어린이집을 개원하였다.

개원을 하고 보니 지금까지 과정보다 훨씬 더 많은 과제와 고민꺼리들이 밀려 왔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굉장히 많았다. 운영방침, 보육료, 부모와의 관계, 교사복지 등 아주 많은 것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새싹방'이 89년에 영아보육시설로 시작하면서 역사를 갖고 있었고, '세쌍둥이' 또한 아이들의 죽음이라는 매개를 통해 설립되고 후원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세쌍둥이 추모행사를 해마다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서로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게 되고 여러 번에 거쳐 논의하였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 논의를 하면서 선생님들끼리 싸움아닌 싸움도 많이 했고 울기도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일단 새싹방 대표 김동준선생님께서 출산 휴가를 마치고 복직하실 때까지로 미뤄졌다. 2월부터 5월 현재 근 넉달동안 함께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운영방식에서의 대립이다. 세쌍둥이와 새싹방의 스타일이 달랐다(이념과 목적이 같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아이를 보육하는 방법부터 부모에 대한 생각, 잡다한 것까지. 따라서 한 가지를 결정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 힘들게 다가왔다. 5월을 마감해가는 지금은 많은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으며 처음처럼 그리 힘들지는 않다. 지금 생각하면 통합한 것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라 통합과정에서 아주 많은 문제가 있었다.

첫번째로는 공개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새싹들의 방과 세쌍둥이에 대해 애정과 관심이 컸던 만큼 그동안 함께 고생하며 어린이집을 지켜왔던 분들에게 통합 이전에 알려야 했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했다.

두번째로는 통합 이전에 서로 각 어린이집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어야 했다. 단지 외형적인 통합이 아니라 내적인 통합을 이루려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기까지 과정이 중요한 것처럼 말이다.

세 번째로 통합이 결정되면 빨리 진행되어져야 하지만 통합을 결정하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은 투자해야 한다.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면 통합해서 이후 진행이 좀더 매끄러웠을꺼라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지금은 좋은 상황이다. 아이들이 좀더 많이 들어오면 더 좋겠지만 '세쌍둥이'와 '새싹방'의 취지를 살려 부모와 함께 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는 어린이집.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이 배어있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즐거운 미소가 흐르는 어린이집. 그런 어린이집을 만들고 싶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 통합어린이집에 이름 달기가 남아있다. 이 생각을 하면 아직도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지만 절대로 피해갈 수 없기에 가장 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노력할 것이다.

글은 쓰고 나니 근 1년동안 겪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생각나고 이것들을 다 글로 옮기기에는 내가 너무 졸필이다. 이후에 책 세 권쯤 써내야 하지 않을까?

이 면을 빌어 통합어린이집 선생님들께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동준언니, 옥선아, 은정아, 경아야 힘내자. 그리고 열심히 싸우자!!!

소모임 소개

인천 '들꽃따라' 여행소모임

이경미 · 인천, 예술어린이집 교사

너무 성급히 찾아온 더위에 미리서 고생이 많으시죠?

제때 찾아와줘도 충분히 헉헉거리며 괴로워(?)할 수 있는데...이거 원!

안녕하세요?

한국보육교사회 인천지부 '들꽃따라' 여행소모임에 대해서 굵고, 알차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잡무에 시달리고, 아이들에게 시달리고, 기타 등등... 인간사 한 세상 힘드시다면 저희 '들꽃따라' 소모임이 어떤 곳인지 자세히 읽어보시구요.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으니 어떤 모습으로라도 좋습니다. 오세요. 항상 문은 열려 있거든요.

저희 '들꽃따라'는 4년여의 역사(?)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모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은 97년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산행만 하는 소모임에서 편안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좀 더 쉬이 다가올 수 있는 '여행'소모임으로 바꾸었습니다.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는 선생님들이 산행이라는 부담 때문에 선뜻 나서질 않으시더라구요. 작년부터 이름을 만들고 여행소모임의 제목으로 활동을 하면서 산, 바다, 섬, 유적지...를 돌았습니다. 올해는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여행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여행을 하면서 얻어지는 정항들을 소중히 모아 자료집도 하나 만들어 놓, 원대하고 이른 계획을 세웠답니다.

현재 회원은 5명이구요, 좀 작은 인원이죠? 하지만 인천보육교사회 엑기스만을 골라 골라 모아 모았기 때문에 50명 부럽지 않게 꾸리고 있지요.

정기적인 모임 날짜는 매월 첫째 주 목요일 늦은 8시에 갖습니다. 정기모임에서는 다녀온 곳에 대한 평가와 수집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다음 여행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소모임 회원이 아니라도 보육교사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여행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전 계획이 이미 지났으므로 이후 6월 계획부터 알려드리면,

6월 5.6.7 경주, 부산여행(요기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미 예매 끝났음을 알려드립니다.)

7월 12일 북한산

8월은 보육교사회 수련회 관계로 비워둡니다.

9월 13일 내장산

10월 에버랜드(날짜미정)

11월 15일 무의도

12월엔 말일쯤에 주위 단체 산행팀과 연대산행할 계획입니다. (신년 해돋이를 보게 되겠죠?)

계획일정을 끝으로 '들꽃따라' 소개를 마치고요. 계획한 날짜와 장소는 변화무쌍한 기상만사(?) 사정에 따라 충분히 변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국의 어린이전문서점 연락처

◆서울 ▲개포) 초록공간 (02-572-9973) ▲고덕) 아름드리 (02-441-8259) ▲구로) 다우리서점 (02-856-1242) ▲대방) 연우와 태희 (02-826-3384) ▲목동) 네모상자 (02-643-0235) ▲목동) 다물 (02-643-4885) ▲목동) 파란나무 (02-654-6539) ▲화곡) 동화나라 (02-697-6461) ▲신림) 파란나라 (02-867-5143) ▲방천) 미운돌멩이 (02-876-2204) ▲신촌) 초방 (02-392-0277) ▲자양) 날마다 자라는 나무 (02-455-0605) ▲방학동) 까치와 호랑이 (02-3493-3108) ▲상계) 이솔 (02-951-2036) ▲송파) 동화나라 (02-416-2978)

◆경기도 ▲광명) 동원 (02-625-9686) ▲광명) 초방 (02-681-6466) ▲인천) 색종이 (032-816-0065) ▲부평) 초방 (032-527-5715) ▲부천) 아빠와 크레파스 (032-348-1230) ▲장호원) 초방 (0336-641-7544) ▲중동) 글서당 (032-651-5485) ▲화정) 동화나라 (0344-968-7070) ▲분당) 가을글방 (0342-716-7879) ▲분당) 동화나라 (0342-702-5571) ▲분당) 아침누리 (0342-716-9685) ▲분당) 파란나무 (0342-714-9580) ▲산본) 밝은세상 (0343-96-1671) ▲수원) 꿈의나라 (0331-32-5786) ▲수원) 으뜸과 꼴찌 (0331-47-1935) ▲안산) 책의 기쁨 (0345-41-3398) ▲원당) 동화나라 (0344-966-1947) ▲일산) 동화나라 (0344-907-1701) ▲김포) 종로서적 (0341-83-1921)

◆강원도 ▲강릉) 초방 (0391-652-4559) ▲춘천) 동화나라 (0361-57-3728)

◆경상도 ▲구미) 책읽는 아이들 (0546-458-0730) ▲대구) 동화마을 (053-475-5149) ▲대구) 어린이나라 (053-615-1799)) ▲대구) 어린이서점 (052-744-2521) ▲대구) 이야기나라 (053-631-2220) ▲대구) 책벌레 (053-793-3347) ▲경주) 글빛물꼬 (0561-749-9926) ▲마산) 민들레 (0551-44-6469) ▲양천) 노벌 (0653-33-7779) ▲울산) 아이글방 (0522-49-5147) ▲울산) 어린이책방 (0522-60-8952) ▲진주) 이솔 (0591-52-3006) ▲부산) 나무나라 (051-701-5448) ▲부산) 책과 아이들 (051-852-1442)

◆전라도 ▲광주) 서당 (062-526-0550) ▲군산) 초당 (0564-63-2591) ▲군산) 한겨레문화센터 (0564-63-2591) ▲남원) 초방 (0671-33-8491) ▲익산) 서당 (0653-835-0915) ▲전주) 서도아름 (0562-221-7165) ▲전주) 초방 (0562-251-2889)

◆제주도 ▲서귀포) 민들레 (064-33-9517) ▲제주) 공솔 (064-22-3020)

◆충청도 ▲대전) 아라야 (042-486-9810) ▲대전) 어린이백화점 (042-862-6111) ▲대전) 책나라 (042-862-8174) ▲청주) 서당 (0431-55-4539) ▲청주) 책나라 (0431-231-1758) ▲당진) 동화나라 (0457-356-1428)

▼▼▼▼
현장교육

아동관찰-낮잠

김경혜 · 부산. 해봄어린이집 교사

어린이집에서는 보통 2시를 전후하여 낮잠시간을 갖는다. 아이들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의미에서 낮잠을 재우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분위기가 산만하여 낮잠을 재우기 힘든 때가 있다. 그리고 안 자려는 아이가 있으면 더 피곤하게 되고.

1. 왜 낮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아이들은 활동이 왕성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알게 모르게 긴장된 생활을 한다. 아침부터 계속 활동하다 보면 피곤하다. 이 피곤을 풀어주고 오후의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시간이 낮잠시간이다. 즉 피로회복과 에너지 축적을 위한 시간이다. 충분한 잠을 못 잘 경우 보챈다거나 친구를 괴롭힌다거나 짜증을 많이 낸다. 그러면 전체 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고 교사, 아동 모두 괴롭게 된다..

2. 안 자려는 아이는?

4살에서 5살 올라갈 때 안 자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도 다독거려 재우면 대체적으로 모두 잔다. 5살까지는 자고 6살 다 되어갈 때 안 재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재우는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재우면 좋겠다. 너무 많이 자면 집에서 안자므로 좋지 않다.

6살이 몇명 있으면 재우지 말고 학습지를 하거나 문자, 숫자를 가르치는 등 별도의 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1-2명일 경우는 누워있거나 자게 하고. 그러나 안자는 아이가 있을 경우 교사가 많이 피곤하게 된다.

엄마들이 집에서 늦게 잔다고 재우지 말았으면 하는데 이것은 아니다. 낮잠을 잘 때와 안 잘 때 집에서 자는 시간을 체크해보면 똑같다. 습관이다. 어린이집에 안오면 일찍 자고 오면 낮잠에 상관없이 늦게 잔다.

낮잠시간에 안자는 아이는 교사가 맡아서 돌봐야 한다. 교사의 업무 때문에 아이들에게 소홀해서는 안된다. 개인차가 있으므로 각자의 발달과정과 생활리듬에 맞게 적절히 고려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체질이나 특성에 맞게 교사가 조절해야 되지 않겠는가?

3. 교사는 무엇을 하는가?

낮잠시간 참 산만하다. 귀가하는 애, 자는 애, 안자는 애, 유치원 갔다 오는 애 등. 아동의 변동도 있고.

교사는 교사대로 이 시간에 바쁘다. 반일반 귀가지도 하고 차량도 나가야 하고 일지도 써야 하고 다음날 수업 준비도 해야 된다.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무적인 일들도 보고 잠을 자거나 교사간 잡담을 하는 등 휴식을 갖기도 한다. 그래서 교사가 아이들 재우는데 모두 집중할 수 없다. 교사 한명이 아이를 재우고 다른 교사는 흔히 교사 볼 일을 본다. 안자려는 아이도 교사가 다독거려 재우면 자는데 우리의 환경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벌을 준다. 우리는 많이 우리의 환경에 아이를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일본에서는 낮잠시간에 교사가 30분씩 돌아가며 휴식시간을 갖던데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 시간엔 아무도 일을 가지고 교사를 부르지 않는다. 교사의 업무가 있는데 제대로 쉬어지는지 의문스럽지만 그래도 교사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건 중요한 것 같다. 교사도 쉬어야 오후에 또 열심히 아이들과 부대낄수 있는 것 아닌가?

4. 이불과 베개는?

아이들이 보통 베개를 베고 자도 금새 안베고 있는데 굳이 베개를 안줘도 된다는 의견과 베개를 주므로 자는 시간을 인식하게 되고 자리에 눕게 되므로 자는 환경을 만들어주어 주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인체 구조상 두상이 크기 때문에 누우면 머리와 어깨사이가 떠서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불은 개인이불이 위생적이긴 하겠지만 애들은 한 이불을 덮고 자면 이불 속에서 장난도 치면서 친해진다. 굳이 개인이불을 안주어도 될 것 같다. 그렇지만 삶을 수 있는 것으로 주었으면 좋겠다. 오줌 싸는 애들도 있는데. 특히 속과 겉이 붙리되어 빠는 이불은 겉만 빨고 속은 보통 말리는데 비위생적이다.

오줌 성분은 햇볕에 말리면 없어지는 것 아닌가?

5. 이떻게 재우는가?

귀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 경험으론 어릴 때 무서운 얘기를 많이 듣고 자면, 자면서 무서운 꿈을 많이 꾼다. 그래서 커서도 무서움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귀신 얘기는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 무서운 얘기를 했다가 끝에 가서 반전시켜 우습게 하여 끝내면 좋겠다.

그렇지만 애들은 귀신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무서운 얘기를 하면 긴장해서 조용해지고 얘기에 집중을 잘하게 된다.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한 것 같다. 우리 능력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기엔 아는게 부족한 것 같다.

6. 낮잠시간 성기를 자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그것으로 풀기 때문에 그냥 두어야 되는 것으로 안다. 다만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여 그 행위에 대해 잊어 버리게 해야 한다.

7. 기타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 낮잠시간이다. 열이 차서 죽는 아이, 토했는데 분비물을 치우지 않아 기도가 막혀 죽는 아이 등. 그래서 낮잠시간에도 교사가 주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한 교사는 반드시 아이들 자는 방에 있든지 자주 방을 들여다 봐야 한다.

그리고 여아와 남아를 깨우는 방법도 다른 걸로 안다. 여자 아이는 자고 일어나 몸을 잘 비대므로 빨리 일으켜야 하고 남자 아이는 성기 때문에 일어나기 힘들어 한다. 그래서 천천히 깨워야 한다고 성교육할 때 들은 적이 있다.

보통, 사람이 잘 때 몸 근육이 다 풀려 있으므로 자고 갑자기 일어나면 근육에 무리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잠이 깼어도 금방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좀 누워있게 했다가 일으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낮잠을 잘 자고 못자고는 보육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이도 자기의 스타일대로 잘 권리가 있고 교사도 쉬어 가며 일해야 한다. 교사와 아이들 모두가 스트레스 안받고 각자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모색 되었으면 한다.

▼▼▼▼

현장소식

계양산에서의 인천보육교사회 스승의 날 자축연!!!

안경아 · 인천. 새싹 · 세쌍둥이 통합어린이집 교사

5월17일 비가 안왔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인천보육교사회 '스승의 날 자축연' 등산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비가 온 뒤의 맑은 하늘과 산들바람을 맞으며 계양산 싸이클경기장 앞에서 모였다. 산이라는 자연과 함께 한다는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달려갔다.

2회 동안의 스승의날 행사를 치러낸 인천보육교사회는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자연 속에서 자축연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가까운 인천 계양산이 생각보다 아름답다는 설에 장소를 결정하게 되었다. 선생님들의 사정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하시진 못했다.

행사는 하늘선생님의 신나는 율동으로 막이 올랐다.

가벼운 몸풀이를 하고 각각의 반쪽 배꼽을 찾아 짝을 지었다. 배꼽 짝끼리 산을 오르면서 나의 반쪽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고 느끼는 일명 '나의 반쪽 배꼽을 찾아서'란 코너였다. '제3회 인천보육교사회 스승의 날 자축연' 각각의 글자가 쓰여진 리본을 찾으며 산을 오르는 것이었는데 반쪽 정신이 팔리다 보니 보물찾기는 앞서간 아이들의 차지가 되고 말았다. (뱃속)아기와 함께 오신 고정미선생님은 산 밑에서 쉬시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정상을 향해 서로 밀고 당기며 질주했다. 동네 뒷산 수준이라던 하늘 선생님을 가끔 원망 아닌 원망을 하며....

비가 온 뒤라 그런지 나무도 너무 푸르고 바람도 더없이 시원했다. 계양산은 전형적인 성냥과

도시와 푸르게 펼쳐진 농촌 사이에서 오묘한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정상에 올라 목청 돋궈 소리를 지르고 이연순 명창(?)의 소리도 들어보고 누가 보육교사 아니랄까 '산도깨비'노래에 춤까지 추며 주위 시선은 아랑곳 않고 가무를 즐겼다. 산을 내려와 점심을 먹고 시루떡 노래를 부르며 떡케익 절단식을 가졌다. "--시루떡"에선 폭죽이 하나 둘 터져 나왔다. 곧이어 이연순선생님의 축사가 있었다. 선생님은 보육교사를 가장 존경하신다며 진정으로 아름다운 프로가 되자는 말씀을 하셨다.

'나의 반쪽 배꼽을 찾아서'는 상대방의 장단점을 3가지씩 쓰고 가장 반쪽을 잘 파악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뽑는 거였는데 이순선생님의 장점인 '한다면 한다'를 정확히 찌른 하늘 선생님에게 상이 돌아갔다. 이순 선생님은 나이와 시간 등등을 초월하여 수영을 하시고 계신다.

오늘의 하일라이트! 보물 찾기 선물증정시간. 자기가 찾아온 글자에 해당하는 선물을 받아가는거였는데, 박은아선생님의 글자 뒤에 가려진 선물은 '봄과 제리' 색종이 그것이었다. 하늘 선생님 왈, "가는 길에 들쥐나 들고양이 한마리 잡아가."

밝고 건강한 웃음이 가득찬 자축연이었다. 함께 자리를 못하셨던 선생님들도 마음은 함께였을 거라 생각한다.

행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선생님들과 모든 인천보육교사회 선생님들 감사드리구요. 축하합니다.!!!

그리구 전국의 모든 보육교사 화이팅!!

교사의 의견

함께한 시간들

이현경 · 서울, 새터어린이집 교사

내가 새터에 있은지도 만 3년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아이들이 왔다 갔지만 몇몇의 아이는 기저귀를 찼을 때부터 5살이 된 지금까지 함께 지내고 있다. 울 때면 목청을 있는대로 높이던 녀석은 여전히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고 몸이 날렵했던 녀석은 지금도 원숭이 재주넘듯 한다. 처음볼 땐 남자아이 같던 아이는 지금은 머리를 길게 땋아내린 예쁜 아이로 자랐고 심장병을 앓던 아이는 수술뒤 튼튼한 아이가 되어 달리기를 좋아한다.

나는 그동안 함께 지낸 아이들은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떠올리는데 그 애들은 날 어떻게 떠올릴까? 소풍때 토마토를 쥐어주며 '누가 더 예뻐요?' 해보라니까 '선생님이 더 예뻐'하고 대답했던 아이처럼 그들 기억속에 나라는 선생 모습은 예쁘게 새겨져 있는 것일까? 두렵기 짝이 없다.

어쩌면 그 아이들 뇌리 속에 처음엔 철없이 소리만 지르던 선생님이 지금은 배불뚝이 아줌마가 되어 조금 철이 들었다고는 생각지 않을까. 지금 나는 함께 지내온 시간들을 뒤돌아 보며 내가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이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 일종의 청문회와도 비슷하다. 이제 그 아이들 곁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청문회가 열린다면 무엇을 물어볼까?

"증인 이현경씨는 새터어린이집의 교사로 있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교사의 직분을 수행하였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 이현경씨는 교사의 직권을 남용해 아이들을 구타, 욕박지르기, 비난하기 등을 일삼은 적이 있습니까?"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수갑을 차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한달전쯤 집안에 일이 있어 남편과 나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면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태어날 우리 아기에게로 화제가 자연스럽게 옮겨졌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남겨줄 것은 무엇인가. 우리 부부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이 세상에 없게 될 때에 그때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자는 것이었다. 물질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진 않다. 다만 우리가 그 자식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느끼고 돈과 학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능력들을 존중해주고 키워주고 싶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됨됨이를

올바르게 끌어주고 싶었다.

한동안 나는 아이들의 버릇없음에 화를 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서로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아닌지도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4월 초순쯤에 타우너를 타고 씨앗을 뿌리러 밭에 갔었다. 그날은 차 안에서 부터 싸움과 불평이 끊이질 않았다. 자리가 비좁은 탓도 있었겠지만 유독 일곱 명중의 두명이 지나치게 신경질적이고 버릇이 없었다. 마치고 돌아와서 한 어머니에게 '00가 계속 말도 안듣고 신경질을 내서 힘들었다.'고 솔직하게 말해주었다. 그 어머니도 아이가 버릇없다면서 아이에게 존댓말을 하도록 지도해 달라는 부탁을 남겼다. 그 일 이후 엄격함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결코 어른의 권위적 입장에서 그 아이가 말 잘듣고 안듣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교사의 말에 손을 올리면서 때리려 하고 반말을 쓰면서 대드는 것은 아닌가 되짚어 봐야 했다. 어쩌면 그 아이는 어른에게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다. 나는 좀더 엄격하게 아이들은 대해야 하겠다고 다짐했다. 혼을 낼때도 따끔하게, 가르칠 땐 확실하게. 그러나 그것 역시 내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문제다. 힘이 들었다. 내 자신을 네게 엄격한 것인가 내가 한번 실수하면 괜찮아. 그럴수도 있지 하지만, 남의 실수는 용서되지 않는다면 그것조차 위선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또 아이들도 그런 선생의 말을 들을리도 없다. 몸은 몸을 심판한다. 잘못된 식생활이 건강을 빼앗는 것처럼 말이다. 엄격함을 가질때에 가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라면이나 인스턴트음식이 해롭게 여겨지면 그날로 끊어버린면 된다. 그러면 몸은 그런 음식을 서서히 원하지 않게 된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이 이러하게 자라도록 해야겠다 한다면 어른이 끊어줄 필요가 있다. 막아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같이 지내온 시간은 돌이켜 보니 길지만, 한 일은 없는 것 같다. 그동안 정을 나눈 시간 시간이 소중히 다가올 듯...

☞ 이달에 권하는 책

손상된 아동기

지은이 Eda J. Leshan / 양서원 / 옮긴이 최기영(한국교원大 유아교육과 교수)

이 책의 지은이는 미국의 Eda J. Leshan이다. 에다 레샨 여사는 유아원 교사와 원장으로 현장에서 일했고, 아동상담소에서 상담자 및 놀이치료사로 활동하였다. 이 책은 그러한 그녀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아동교육의 현실, 문제점 등에 대하여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조기교육의 문제점, 어린이에게 있어 놀이가 갖는 의미, 개인차의 존중, 사회적인 방관이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 몬테쏘리교육의 문제점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책은 60년대 말의 미국의 아동교육 현실을 이야기한 책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때로부터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닮았다는 것이다. 아마 우리 사회가 미국사회보다 이 정도의 세월만큼 각 분야에 있어서 뒤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우리 나라는 60, 70년대의 근대 산업화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정말 밤낮없이 일했다. 그 결과 80년대부터는 축적된 경제적인 부를 누리며 살게 되었는데, 바로 이 시기와 비슷하게 유아교육에서 조기교육의 열풍이 시작되었다. 예전과 달리 자녀의 수도 줄게 되고,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게 된 것과, 아이들을 좀 더 유능한 어린이로 만들어 경쟁사회에서 유능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모들의 욕구가 맞아 떨어진 결과였다. 에다 레샨 여사는 이러한 사회현실의 결과 아이들이 받게 된 상처를 '손상된 아동기'라고 표현한 것 같다.

인간의 수명은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최고이기를 원하는' 어른들 중에는 어린이들을 어른들 모양으로 서둘러 만들려고 함으로써 아동기를 단축시키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유아기만큼 독특하고 발달과정을 예측할 수 없고 신비스러운 시기는 없다. 이런 유아기에 우리의 부모들은 만능의 어린이를 만들기 위해 돌만 지나면 인지적인 학습을 아이들에게 강요한다. 어린이 스스로의 주체적인 경험과 그로부터 어린이가 얻을 수 있는 생의 환희를 어른들은 빼앗고 있는 것이다.

교육학자, 아동심리학자, 현장 교사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생의 초기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학자는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초기경험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있는 것 같다. 어느 한 편에서는 이 시기에 인지적인 학습을 시키면 아이들이 이후에 자라서도 학습능력이 뛰어나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한 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다. 생의 초

기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세계를 탐색해 보고 도전해보면서 사랑을 어떻게 주고 받는지, 위험은 어떻게 어떻게 알아차려야 하는지, 기쁨과 만족감을 타인과 나누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한 욕구도 자제해야 한다는 것 등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에다 레샨 여사는 후자쪽의 입장에서 이 책을 저술하였다.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 양쪽 모두 100% 옳다는 결론은 없지만, 전자의 입장은 상업주의와 맞물려 급속하게 부모들에게 전파되면서 우리 아이들의 아동기를 손상하고 있다.

에다 레샨 여사는 이 책에서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놀이는 어린이가 세계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학습의 수단이 된다. 놀이는 무의식적인 욕구와 감정을 표현하는 어린이들의 언어이다. 엄마놀이, 병원놀이, 경찰놀이... 이러한 역할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고,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발산하게 된다. 또 신체적인 놀이를 통해 고른 신체의 발달을 꾀할 수 있고, 놀이를 하면서 놀이의 규칙·기술 등을 습득해 나간다. 바로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발달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다. 에다 레샨 여사는 책에서 어린이의 놀이를 가장 확고하고 분명하게 지지하는 사람 중의 한 명으로 클라라 램버트 여사를 꼽고 있다. 램버트 여사는 놀이를 아이들의 감정 배출구로, 공포·불확실·혼돈 그리고 그런 감정들을 처리하는 능력 등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수단으로 생각했다. 또 놀이를 삶과 일상생활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극적이고 상상적인 놀이는 어린이의 의식적 사고와 내적 감정을 연결하는 다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어린이들의 놀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을 둘러보자. 변변한 놀이터 하나, 마음껏 흙장난하며 뛰어 놀 공터,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탐색할 산 등이 우리 아이들 주변에 얼마나 있는가? 또 이런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 현대의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놀이의 권리를 빼앗고 있는 것이다. 유능한 만능의 어린이를 만들기 위해...

이 책에서 나는 '사회적 부모(Social Pareants)'라는 말을 아주 의미있게 받아들였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의 심리적인 요구에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 아동들의 인간적인 요구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지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 질수록,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녀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은 점점 더 작아진다. 아이들은 부모가 어떻게 해 볼 겨를도 없이 거대한 사회에 휩쓸려 버리게 된다. 단적으로, 내가 아무리 가정에서 내 자식에게 폭력적인 만화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도 폭력으로부터 온전히 내 아이를 지켜내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 '사회적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같은 생각을 가진 부모들이 힘을 합쳐 사회에 압력을 가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폭력적인 만화나 문화상품들을 막아내는 것이다. '사회적 부모'로의 출발점은 사회에 대한 무관심과 냉담, 개인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울수록 이러한 '사회적 부모'의 역할은 더욱 더 크게 빛을 발할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의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아동의 욕구를 최적으로 만족시킬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에다 레샨 여사의 기준은, 현장의 교사로서 현재 '나'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되돌아 보게 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

첫째, 아동중심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 놓은 곳이어야 한다.
둘째, 교사들이 아동의 신체적 욕구를 이해하고, 타인과의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온화하고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곳이어야 한다.
셋째, 아동의 연령에 따른 발달상태와 심리상태를 이해하여 활동을 선정하도록 하는 교사가 있는 곳이어야 한다.
넷째, 교사가 항상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
다섯째, 교사가 학습내용 자체보다는 아동들이 나타내는 만족감을 눈여겨 보고, 흥미를 유발시키도록 노력하는 곳이어야 한다.
여섯째, 아동들의 의사와 선택에 따라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일곱째, 아동들은 어떤 질문이라도 할 수 있고, 교사의 도움에 의해 적절한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지도되는 곳이어야 한다.
여덟째, 아동들의 자발성, 긍정적 자기 표현감, 타인과의 협동적인 생활태도 유지, 타인과 자신의 권리존중감 등을 길러 주는 곳이어야 한다.
아홉째, 교사는 지능지수를 높이는 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고 교육시키는 곳이어야 한다.

교사로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파에 굴하지 않고 전인적인 어린이를 교육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일 것이다. 어린이를 학생이 아닌 하나의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교육시키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다.

권하는 이 : 서은희(본회 부회장)

▼▼▼▼▼▼▼

좋은 그림책 소개

흰 토끼와 검은 토끼

가스 윌리엄스 글, 그림 / 강성자 옮김 / 다산기획 / 5,000원

나는 많은 그림책들을 봐 오면서 이토록 내게 재미가 아닌 '진'한 감동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준 그림책은 없었다. 영화도 소설도 아닌 아이들의 그림책을 보고서 말이다.

이 그림책의 그림은 은은한 파스텔 톤의 분위기로, 검정색과 연한 노랑색 그리고 살짝 살짝 진한 노랑색이 포인트로 들어간 것이 이 그림책에 사용된 색의 전부이다. 하지만 이 그림책의 내용을 알게 되면 작가가 얼마나 탁월한 색을 사용하였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두 마리의 토끼는 숲 속에서 행복하고 재미있게 논다. 하지만 어쩐지 검은 토끼의 표정이 슬프기만 하다. 흰 토끼는 계속해서 묻는다.

"왜 그러니?"

하지만 검은 토끼는 "음, 무슨 생각을 하느라고 그래."라고 매번 같은 대답만 할 뿐이다.

풀은 데이지와 미나리아재비가 피어있는 들판에서 숨바꼭질을, 도토리 줍기를 하며 놀지만 여전히 검은 토끼의 표정은 슬프기만 하다.

계속되는 흰 토끼의 질문에 검은 토끼는 '소원'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대답한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는 흰 토끼의 질문에 의외로 검은 토끼의 대답은 놀랍기만 하다. 그 대답에 대한 흰 토끼의 반응은 더욱 더 놀랍고 감동적이다.

이로 인해 둘은 달빛 아래 숲속 동물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한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게 된다.

이 그림책의 맨 마지막 글 또한 보는 이에게 더욱 더 감동의 끈을 놓지 못하도록 한다.

만약에 이 그림책에 이러한 은은하면서도 부드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색감이 사용되지 않고, 나무는 진한 초록색에 풀밭의 꽃들도 화려한 색으로 그려졌다면 두 마리의 토끼의 사랑은 전혀 감동적으로 전달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그림책의 압권은 등장인물, 바로 두 마리 토끼의 표정이다. 글이 없어도 두 마리 토끼의 표정으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마치 살아있는 듯이... 이러한 토끼의 표정이 독자로 하여금 눈물어린 웃음을 짓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감동을 어른이 아닌 아이들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것에만 노출되고 길들여져 있는 요즘의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한 번 읽어 주고 싶은 그림책이다.

애인이 있으신 분은 이 그림책으로 프로포즈를 해보심은 어떤지...

소개하는 이 : 김랑희(그림책을 좋아하는 교사모임, 서울 초록별어린이집 교사)

● 그림책에 관심있는 교사모임을 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교사는 본회로 연락 바랍니다. ●

세상읽기

또다시 유월을 맞이하면서

위양자
본회 전 부회장

"한국 최고의 수출 상품"으로 박세리가 떴다. 산자락을 등지고 살던 농민들이 골프장 건설 결사 반대를 외칠 때에도, 어떤 대통령이 정치인들에게 골프 회동 금지령을 내릴 때에도 그녀는 골프를 쳤나 보다. 그러나 그녀는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대통령의 측전과 격려를 받았고, 낙이 없는 시대에 잠깐이나마 기쁜 소식이 됐다.

드디어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대통령이 32년 장기집권의 권좌에서 물러났단다. 독재와 부정축재자라는 낙인을 찍으며 "개혁"을 목이 터져라 외친 시위대에 굴복해서. 소식이 전해진 것은 우리 온국민의 가슴 속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결코 벗어던질 수 없는 사랑의 굴레, 5월 광주항쟁기간 중이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지금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오늘날. 그러나 권력을 이양한 하비비도 믿을 수 없다고 시위는 계속되고 있단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래도 정권교체를 이뤘으니 뭔가 달라지겠지 하다 행려로 나서거나, 정리해고의 서슬을 피하기 위해 서로 조금씩 일하고 적게 쓰자며 목숨 내걸고 시위를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사태에 대해 외신보도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막 정권교체의 벅참이 온 국민의 가슴 속에 들어차고 있을 무렵, 시골 한 초등학교 동창들이 모여 날 새는 줄 모르고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을 지켜본 기억이 있다. "야, 그런데 말야. 우리 나라도 아이엠에프데 왜 인도네시아만 폭동처럼 일어나냔 말이다?" 깨복쟁이 시절 풋사랑 이야기를 주어 섬기던 그들은 이내 그들이 함께한 바로 그날의 속내를 숨김없이 드러내었다. 그로부터 두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그 사람은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가 물러났다거나 하는 일에는 관심조차 가질 수 없는 것 같아 보인다.

우리 나라에는 그 이전부터 한 가족의 집단자살, 부도를 낸 사장이나 개인의 죽음에 관한 소식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시대를 대비해 준비된 대통령이 실업기금 조성을 위해 그 자신의 고통스런 과거의 유산인 지팡이를 내놓았고 어떤 이는 그것을 수천만원에 사기도 하는 사이, 이제 한 개인의 죽음은 더이상 언론의 가십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어느새 언론은 이미 역사의 심판을 받고 결말이 지워진 듯한 필치로 18년 전 5월 광주를 감히 기념한다. 아무런 약탈 강도도 없었다는 등

"국제신인도와 경제회생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평화로운 삶을 위한 요구들을 잠 재우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또다시 여느해처럼 6월을 맞으며 '98년 국제구제금융시대의 위기에 한발 들여놓은 나라에서, 국민들의 평화적 삶의 보장은 과연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가능할지 궁금하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폭동을 암암리에 비난하며, 절대적으로 평화적일 수 있는 것처럼 국제신인도 운운하고 있다. 18년전 광주는 모든 언론이 등을 돌린 채 폭도들에 의해 난리가 났었지만 지금은 민주의 성지로 굳건히 자리매김 되었고 그때는 폭도라고 했던 그들 스스로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

민주노총의 세계노동절기념 집회가 '폭력'시비로 인해 그들이 무엇을 요구했는지는 기억되지 못한 채 잊혀져 가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인도네시아사태에 대한 보도를 통해, 마치 김대중대통령 정권에서는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평화적이기만 하면 다 이룰 수 있는 양,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국제신인도와 경제회생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평화로운 삶을 위한 요구들을 잠 재우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87년 6월항쟁의 이슈를 지금 대통령께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다른 것은 다 잊었을지 몰라도 이것만은 기억할 것이다. 그렇게 바라던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고 나서도 몇년을 더 고생해 눈물의 정권교체를 이루고 대통령의 권좌에 오를 수 있었는지를 잊지 않았다면 그때 왜, 무엇을 위해, 국민들이 그렇듯 거리로 나와 한마음이 됐었는지를 기억해낼 수 있을 것이다. 또다시 여느해처럼 6월을 맞으며 '98년 국제구제금융시대의 위기에 한발 들여놓은 나라에서, 국민들의 평화적 삶의 보장은 과연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가능할 것인지. 혹 국민의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서 어떻게든 국민회의 정부로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보육지침 현실성 없어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지침이 현실성이 없는데다 보육시설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아 보육시설의 2살 미만 영아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연구원이 1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0~5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시설의 2살 미만 아동 비율은 정원이 52명인 경우 9.6%(5명)에 달했다. 정원이 79명인 경우 이 비율은 6.3%(5명)에 불과했다. 현 보육사업 지침이 시설규모에 따라 2살 미만 아동의 비율을 전체 정원의 최소 6.3~9.6% 안에서 구성하도록 돼 있는 만큼 지침의 최저수준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보육시설 이용을 원하는 2살 미만 아동의 구성비는 28~39.2%에 이른다.

부모들이 2살 미만 영아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이유는 '본인 및 가까운 사람이 돌보는 게 안심이 되므로'가 66%에 달해 보육시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 2살 미만이라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부모도 25%에 달해 복지부의 보육시설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5월19일자 한겨레신문에서

육아일기

유빈이도 공주병?

나은미 · 경기도 고양시 오손도손애기방

아들을 기다리던 양가의 바램과 달리 딸을 낳고, 어쩔 수 없는 여자로 키우지 않겠다며 이름을 지을 때도 사주에 좋다는 흔한 여자이름들을 무시한 채 '유빈'을 선택했는데 요즘 유빈이를 보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가려고 옷을 꺼내 입히는데 웃옷을 입히고 멜빵바지를 입히려니까 "시어(싫어)."하며 웁니다. "왜 그래? 빨리 입고 가자."했더니 신경질적으로 더 크게 웁니다. 다시 묻자 "강아지가 안보이잖아."합니다. 웃옷에 그려진 강아지 그림이 바지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기가 막혔지만 울지 말고 너의 생각을 말로 하라며 다른 바지로 갈아 입혀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갈 준비 다됐어."하며 현관으로 쪼르르 달려 갑니다.

치마를 한번 입혀 주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꾸 치마를 입으려 합니다.

옷이든 신발이든 자기 마음에 든 것을 골라 입고 신습니다.

바지를 입으면 잠바를 입겠다고 하며, 치마를 입으면 겉옷을 안입으려고 합니다.

머리핀이나 머리띠도 자기 마음에 드는 것으로 골라 사야 합니다. 어느 날, 아빠가 머리핀을 골라 "유빈아, 이거 이쁘지?"했는데 "안이뻐." 하며 무시합니다. 옆에 있던 엄마는 얼마나 무안했는지.

새로운 옷을 입거나 하면 "짠짜잔--"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엄마가 빨래를 하고 있는데 "엄마, 뭐해?"하고 묻길래 "응, 아빠 와이셔츠 빨아."했더니 "왜?"하며 다시 묻습니다. "더러워서."하고 대답했더니 "아빠 시어."라고 합니다. 엄마가 깜짝 놀라 "왜 아빠가 싫어?"했더니 "지저분하니까."합니다. 엄마는 아빠 옷이 왜 지저분해졌는지 설명을 하면서도 당황했습니다.

요즘에는 텔레비전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채널을 바꾸면 난리가 납니다. 뉴스를 보려고 하면 "시어. 다른데 틀어." 합니다. 드라마나 광고를 틀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 방송국의 일일연속극을 몇번 보더니 그 프로그램이 나오면 "연속극이다."하며 아는 척을 합니다.

유빈이의 이런 행동들은 엄마의 영향이 큽니다. 서른 두 해가 되도록 여자로 길들여진 엄마가 성평등을 교육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넌 여자니까, 넌 남자니까 이래야 한다는 식의 잘못된 교육을 하지는 않지만 무의식적인 엄마의 행동이 유빈이를 여성스러운 여자아이로 만들어 갑니다.

옷을 입혀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무심코 "유빈이 예쁘네."합니다. 몸에 뭐가 묻으면 "더럽네. 그러면 미워지는데."합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텔레비젼 프로그램-드라마, 오락물-을 보고 있는데 아빠가 채널을 바꾸면 짜증을 냅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아무 생각없이 하는 엄마의 모습을 유빈이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유빈이를 본 엄마의 친구들이 생긴 것도 엄마를 꼭 닮았는데 하는 짓도 엄마를 닮아 여우라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웃지만 가슴이 덜컹 내려 앉습니다. 어쩔 수 없는 여자로 키워진 자신에 대한 한계를 자주 절감하고 있던 엄마의 모습이 유빈이에게 그대로 이어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이제 몸짓 하나, 말 한 마디에도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이래서 '아이는 어른의 스승'이란 말이 있나봅니다. 무심코 했던 행동이 유빈이의 성격을 좌우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엄마는 행동이 더욱 조심스러워집니다.

어린이전용 차량에 대한 기사 모음

◆기아, 어린이보호차량출시

기아자동차가 '프레지오 어린이 보호차'를 출시했다. 이 차는 외관을 노란색으로 하고 어린이가 승차하기 편하도록 제작된 보조발판과차량의 주·정차 및 운행상태를 알려주는 경광등, 어린이 체형에 맞는 2점식 안전벨트를 기본 장착했다. 어린이 보호차량의 자격요건을 갖춘 차를 운행하면 버스전용차로 주행이 가능하여 여타 차량들로부터도 추월금지 서행 등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어 어린이 안전운행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1998년 5월 8일자 연합통신에서

◆현대차, 「어린이전용 통학버스」 시판

현대자동차는 안전성을 높이고 관련법규 기준을 만족시킨 어린이 전용 차량인 「어린이 통학버스」를 개발, 20일부터 시판한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버스 법규를 충족한 어린이전용 통학버스가 시판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첫계단 높이를 3백84㎜에서 2백99㎜로 낮췄고 기존의 2계단에 보조계단을 추가, 어린이들이 혼자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앞뒤에 각각 2개씩의 적색과 황색 경광등이 설치됐다. 또 창문의 열림폭을 일반차량의 5백70㎜에서 1백20㎜로 제한, 추락 및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했고 어린이 체형에 맞는 안전띠와 시트를 적용했다. 시판가격은 단축 34인승이 2천1백5만원, 장축 39인승은 2천3백75만원이다.

어린이 통학버스란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13살 미만의 어린이를 교습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통학용 자동차이다.

1998년 5월 20일자 연합통신에서

퍼즐 퍼즐(제9회)

드디어!!! 지난호에 실린 제8회 퍼즐 퍼즐의 정답 응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경품을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8회 응모자 중에서 경품을 받게 되는 분은 바로 요 아래에 있습니다. 축하드리구요. 조만간에 정희연 회장님의 여기저기한 예정품(?!)이 도착할 겁니다.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호에도 이번처럼 응모자가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럼 여러분 퍼즐 열심히 풀고 열심히 아이들을 봅시다!!!

정답은 다음호에 나오는 거 알죠?

당첨자 : 이예용(서울 금천구 시티어린이집)

□ 요게 바로 지난호 **제8회 퍼즐 퍼즐** 정답이에요.

<가로열쇠>

① 유아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등장한 시설로, 제 역할을 다 해낼 수 있을지 조금 염려스럽죠 ② 밥을 담는 통, 먹는 것만 한 사람 몫을 하고 다른 일은 제 구실을 못하는 사람을 조롱할 때 쓰기도 해요 ④ 세계 골프계를 깜짝 놀래킨 한국의 요술공주 ⑤ 물이 많은 복숭아를 말합니다. 어느 시인은 여인의 젖가슴으로 비유하기도 했죠 ⑦ 중세 유럽의 봉건사회에서, 평생 영주에 예속되어 농사를 짓던 농민 ⑨ 국민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공공시설. 대량실업시대에 하나의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⑩ 털이 길고 양털 모양인 애완견 ⑪ 요것도 개입니다. 몸집이 작고 얼굴이 평평하고 주둥이가 매우 짧은 종이지요. 여기저기 많이 돌아 다니는 사람을 보고 이거 같다고도 합니다. ⑭ 남을 원망하거나 책망할 것이 없음 ⑱ 휴전선에서 남북 각 2km 사이에 있습니다. DMZ ⑲ 요즘 너무 많아지고 있죠. 일자리를 잃은 사람 ⑳ 조선때, 도둑 붙기를 치던 곤장의 한 가지로, 호된 벌을 준다고 할 때 이걸 안긴다고 말합니다.

<세로열쇠>

① 기름에 튀긴 두부 속에 넣어서 먹는 시큼한 맛의 밥 ③ 통과화물에 대해서 매기는 조세 ④ 아마도 조선시대 가장 유명했던 암행어사가 아닐까요? ⑥ 콘스탄티누스 1세가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칙령을 내린 곳. OOO칙령 ⑧ 지난달 「현장교육」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개별 보육시설에서 시설 자체 행사나 보육활동 등과 관련해서 여러 안건을 처리하는 모임이지요. ⑩ 아무렇게나 하는 대접. ⑪ 폐단의 근본을 아주 뽑아서 없애버림 ⑫ 9-12세를 대상으로, 세계 친선의 목적으로 열리는 세계소년야구선수권대회 ⑬ 장기집권은 박정희, 양민학살은 전두환시절을 방불케 했다가 이승만처럼 중도하야한 인도네시아의 전 대통령 ⑭ 수비와 경계를 위해 배치된 군대 ⑮ 푹 삶은 된장을 띄워서 만든 장 또는 그 찌개. 냄새가 좀 콜콜하죠? ⑯ 6월 4일은 OOOO 선거일입니다. ⑰ 프로이드가 얘기한, 인간의 본능적 에너지의 원천 ⑲ 가는 실오리. OO 같은 목숨

한국보육교사회 여러분!!
목돈도 마련하고 보육교사회 재정에도 도움을 줍시다.

지난 2월8일에 있었던 한국보육교사회 총회에 참석하셨던 회원들은 98년 예산보고때 특별계후원금이란 수입항목이 기억나실 겁니다.

보육교사회가 앞으로 회원도 2,3,4배로 늘어난다면 회원들의 회비 수입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매년 누적되는 적자를 메꾸는 일이 무척 부담으로 와 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에는 "계"를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예로부터 "계"는 공동체의 대표적인 실천행위로 서민들의 목돈마련에 유용한 수단이었습니다.

관심있게 읽으시고 회원 여러분들의 매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에만이 우리의 조직인 한국보육교사회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번호	0	1	2	3	4	5
타는 금액 (원)	1,100,000	1,000,000	1,010,000	1,020,000	1,030,000	1,040,000
번호	6	7	8	9	10	11
타는 금액 (원)	1,050,000	1,060,000	1,070,000	1,080,000	1,090,000	1,100,000

1. 매월 납부액은 100,000원 입니다.
   타는달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고난 다음달부터는 1부 이자를 냅니다.(10,000원씩)
2. 결과적으로 한달에 약9,000원을 보육교사회로 후원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3. 0번은 보육교사회 중앙으로 올려져서 사용됩니다.
4. 회원들뿐 아니라 우리 계조직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봅시다.
5. 계조직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보육교사회 사무실(☎02-275-8505) 또는 남미영 전 회장(샘터어린이집☎867-8698/오줄015-923-1445)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꽁트●

성수의 가짜 곶감

박혜명 · 광주보육교사회 회장

5월을 들어서지 날씨는 하루가 다르게 무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00여평 남짓한 교실에서 16명의 활기왕성한 아이들과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한선생도, 흐르는 땀을 닦느라 매일 손수건을 2장씩 적셔냈습니다. 뉴스는 연일 수은주가 어쩌니 이상고온이 어쩌니 하며 첫머리를 날씨 소식으로 장식을 했고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질병 유행과 더불어 여러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인지, 한선생네 어린이집도 지역교류활동을 함께 하는 인근 의료원의 협조를 얻어 내일 뇌염예방접종을 계획했습니다.

오늘도 6시가 되자, 아이들은 귀가 준비를 했습니다.

"놀이시간 끝났다-아. 정리를 해보자-아. 서로서로 도와서..." 노랫소리는 하늘을 찌를 듯 하고 아이들은 놀이감 정리, 손씻기, 옷입기를 차례로 해냅니다. 한선생이 2월말에 처음 반을 맡을 때만 해도 바닥이 위로 온 양말에 안팎이 뒤집힌 셔츠에, 가방에 쓰인 친구이름 석자를 손으로 짚으며 버젓이 자기 이름으로 읽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의 의젓한 옷입기를 지켜보는 게 한선생의 기쁨이 되었고, 자기이름 정도는 글자모양을 기억하여 척-하니 골라내는 것이 한선생의 뿌듯함이 되었습니다.

"애들아, 옷 다 입은 친구들은 여기 앉아요. 선생님하고 그림책 보자."

내일 주사 맞는 아이들을 위해 용기도 북돋워줄 겸 아이들이 좋아하는 '호랑이와 곶감'책을 골랐습니다. "자, 호랑이-와-곶-감, 옛날에 옛날에..."

아이들은 금세 이야기의 세계로 빠져들어갑니다. 특히 다음 달이면 27개월이 되는 어리지만 기발한 아이 성수는 눈 한번 깜박임 없이 얘길 듣더니 그림책이 덮이자 "쩐째미, 호랑이랑 곶감이랑 다 이겼어요? 곶감도 힘세요?"라는 질문을 해서 어지없이 한선생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접종준비에 바쁜 한선생은 성수엄마로부터 성수가 갑자기 곶감을 주라고 성화여서 친구랑 나눠먹으라고 좀 보냈다는 전화를 받았고 어린이집은 10시부터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로 북적댔습니다. 다행히 미리부터 우는 아이는 없었지만 한선생은 겁을 먹고 자꾸 뒷걸음치는 아이들을 진땀을 빼며 겨우 줄로 세웠습니다.

10시30분이 되자 접종은 시작되었고, 8번째 줄에 서있던 성수의 차례가 되어 한선생은 두려움에 눈물이 글썽거리는 성수에게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수 차례네. 친구들 모두 씩씩하게 주사 맞았지요. 성수도 잘 참고 주사 맞자. 어머, 성수 손에 든 거 뭐니? 선생님 좀 보여주세요."

성수는 손을 펴더니 땀이 밴 곶감을 보여줍니다. 한선생은 아침의 성수엄마 전화를 떠올리며 "성수는 곶감 좋아하나보구나. 그래, 주사 맞고 같이 먹자."

잠시후,

주사 맞은 팔뚝을 부여잡으며 뛰어나오는 한선생네 어리지만 기발한 아이 성수는 통곡을 하며 한선생의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아-앙, 쩐째미, 곶감이가 가짜예요. 하나도 힘 안쎄요. 앙-앙- 아파요."

그때서야 성수의 곶감의 의미를 알아챈 한선생은 어리지만 기발한 아이 성수를 더욱 꼬-옥 안아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세상만들기

예술어린이집에서 생긴 일

☺ 이야기 하나 · 목욕필수품

청결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욕할 때 필요한 것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 얘들아. 목욕할 때 뭐가 필요하지?
아이들: 비누요. 때미는 거요. 샴푸요. 수건이요...
형도 : 용로수요!

☺ 이야기 둘 · 택호의 시할아버지

재밌는 반(6.7세)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데 주제는 돌아가신 할머니·할아버지-
누군지 : 우리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또 다른 누군지 : 우리할아버지도 돌아가셨다.
또또 다른 누군지 : 우리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택호(6세. 남) : 우리 시할아버지도 돌아가셨다.
그리고는 장미선생님의 커다란 웃음소리

☺ 이야기 셋 · 구슬담기 시합

구슬 통에 빨간 구슬만 골라서 누가 더 많이 빨리 담아낼 수 있나 시합을 했다. 끝난 후(수완이(5세. 남) 적 보기에도 많이 담았다).
수완 : 우리가 더 많이 담았다.(그 목소리 크기도 하여라)
양지 : 아니네-우리가 더 많이 담았네!
수완 : (아주 화가 난 목소리로 힘을 주어) 아니! (동시에 양지의 머리를 콕 쥐어박는다)
양지 : 그렇다고 때리는 게 어딨어- 어-!
수완 :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며) 저-기 있다. 왜 저-기-

☺ 이야기 넷 · 고정관념 뛰어넘기

아침 자유놀이 시간. 출근한 선생님한테 달려들어 새옷을 입었다고 자랑하는 아이들
형도(5세. 남) : 선생님. 선생님 나. 이거 윗도리 우리 엄마가 사줬다요.
선생님 : 우와 - 멋진데. 따뜻하겠다.
현태(5세. 남) : 선생님. 선생님 이옷(그전부터 입고 다니던) 우리엄마가 사줬게요-우리아빠가 사줬게요?
선생님 : 으-응. 엄마가.
현태 : 아니에요. 틀렸어요. 우리 고모가 사준거에요.
선생님 : 으잉!!

☺ 이야기 다섯 · 그것도 비밀이야...

하늘 선생님(이경미선생님)이 입안에 무언가를 넣고 오물오물하는데 앗! 양지(5세. 여)한테 들켰다.
양지 : 선생님 뭐 먹어요? 네?
하늘 선생님 : 으-응 비밀이야
양지 : 선생님 비밀을 왜 먹어요?
하늘 선생님 : ...

☺ 이야기 여섯 · 띠는 띠잖아...

8살짜리 자기오빠를 너무나 좋아하는 고은이(6세. 여)는 오늘도 오빠자랑에 입이 마른다. 오늘의 주제는 태!권!도!
고은 : 우리 오빠 무슨 띠인지 알어?
아이들 : 뭔데?
고은 : 파랑색 띠다.
진혁(7세. 남) : 우리 지연이 누나는 9살인데. 노랑띠다.
적어나 많은 아이들이 누구는 몇 살인데 빨간 띠네. 까만 띠네...하며 왁자지껄한데...)
한솔(6세. 여) : 나는 닭띠다!

이번 『아이들의 세상 만들기』는 인천 예술어린이집에서 '재밌는 반'을 맡고 계시는 이경미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반 이름만큼이나 아이들의 이야기도 재미있죠?
이렇게 아이들과 지내다 그냥 혼자 알기엔 너무 아까운 일화들을 모아다가 『아이들의 세상 만들기』로 보내주세요. 재활용이 따로 있나요?

우리들의 목소리(1)

햇살별곡-거북선생님의 꿈

이명숙 · 인천, 햇살어린이집

1. 한결의 버릇 고치기

한결이는 올해 일곱 살 난 사내아이다. 똘똘하게 생겼으면서도 장난기도 제법 심한 편이다.

야외놀이 나갈 때는 차 뒤에 숨거나 나무 뒤에 몸을 숨겨 내가 찾을라면 꽤나 고생을 하곤 했다.

올 봄 어느날 효성공원으로 야외놀이 가면서 드디어 한결이의 이 버릇을 고칠 절호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다. 사건인즉....

그날도 여느 날 야외놀이와 마찬가지로 효성공원에서 1시간 가량을 신나게-햇살아이들은 정말로 놀 줄 아는 것 같다.-뛰놀다가 나의 9인승 승합차에 올라 타기 전 아이들 엉덩이 털기와 인원점검을 마쳤다. 그때는 분명 인원수가 맞았는데 시동을 걸고 100m쯤 빠져나오니"한결이가 없는데요."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골목길을 돌아 효성공원으로 와보니 어쩔 것인가? 한결이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아까 분명히 엉덩이를 털어주면서 인원점검을 할 때는 있었는데... 아차 싶어 다시 '햇살' 가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 50m 정도 지나니 어떤 꼬마가 혼자서 축자고 앞으로만 뛰고 있었다. 한결이었다. 우리 차를 보고는 반은 우는 표정 반은 놀란 눈이었고 아이들의 박수소리를 받으며 차에 올라탄 한결이 왈, 차에 타려고 그러는데 확 떠나버리잖아요...그 이후 한결이의 장기는 약간 무디어졌다.

2. 떡볶이집 사건

햇살어린이집 완공일을 얼마 안 남겨둔 초겨울이었다.

건축현장에 나가 봐야지 대형운전면허 따러 학원에 다녀야지 아이들한테 제대로 신경 쓸 여유도 없는데 애들은 나만 보면 효성공원에 가자고 성화가 말도 못한다.

9인승 승합차가 내 부주의로 주저 앉아 폐차날만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아이들에게 9인승 승합차가 폐차직전이라 탈 수가 없는 사실을 숨기고 가까운 청천초등학교로 야외놀이 가자고 제안하면 초기에는 엄청난 야유와 반대의사를 전했었다.

"거북장군 안돼." 어떤 녀석은 "거북이, 효성공원으로 가자."라고 까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청천초등학교로 가자 해도"예, 예."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아이들이 모처럼 말도 잘 듣는 것 같아 무슨 맛있는 것이라도 사주어야지 속으로 생각하며 학교로 갔다. 운동장에서도 싹싹하게 말을 잘 듣는다. 이제 그만 가자 해도 "예, 예."하고. 초등학생들 틈바구니 끼여 쫴금하니 여간해서 눈에 띄지도 않던 한결이 현우 민혁 가현 영은 단비 같은 7세 아이들과 그날 따라 쫓아나온 성현이 건희 등 6세 아이들까지 나를 존경스런 눈으로 쳐다 보며 길을 재촉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속으로 아이들에게 군것질 좀 시켜주려고 하긴 했는데 왠지 찜찜한 한것은 왜일까? 곧이어 총 13명의 아이들이 떡볶이집을 점령했다. 떡볶기 두 접시로 때우려던 내 의도는 5분도 안되어 빗나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떡볶기가 떨어질 때 쯤 되자 누군가 은근한 목소리로 "거북장군, 호떡 하나 먹어도 돼요?" 하더니 난처하게 쳐다보는 나의 승낙도 듣기 전에 잽싸게 달려가 호떡 하나 입에 물고, 나중에는 누가 하나 색다른 것-라면, 소세지, 튀김, 찐계란꽃이, 오뎅을 들고 먹으면 와 달려가 나도 하나 줘요-하는 식이 아닌가! 단골 학생들까지 나서서 숫자와 돈을 계산하는 광경이 호떡집에 붙난 것 같았다.

망했구나 하면서도 오천원이면 되겠지 여유를 되찾으며 내 눈치를 보는 가현이에게도 호떡 하나를 쥐어 주며 나오는데 쭈쭈바까지 하나씩 물려주는 것이 아닌가?

주인 아저씨도 민망한지 "추운데..." 100원짜리도 있는데 왠 300원짜리만 골르는지....

그날 8,6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고 그 댓가로 아이들은 며칠 동안 거북장군선생님을 외쳤지만 나는 청천초등학교가 왠지 겁이 났고 갈 기회도 생기지 않았다.

새로 공부방 선생님이 오신 것이다.

우리들의 목소리(2)

짧은 국악교육을 받고서

김경미 · 서울, 이화어린이집 교사

어느덧 내 나이도 서른을 바라보게 되었다. 서른이라는 나이가 멀게만 느껴졌고 그땐 뭔가 확실한 나의 삶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대학에 갓 들어갔을 때는 생각했었다.

휴학기간을 포함해서 5년의 대학생활을 했다. 남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최상의 가치로 생각해서 전공으로 사회사업과를 주저없이 선택했으나 내 전공이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는 게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느끼게 되면서 학생운동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것, 우리의 문화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었고 우리의 정서가 담긴 노래와 춤을 배우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주위에 우리의 악기를 배워볼 기회가 많았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배울 기회를 놓쳤다.

졸업후 전국역사교사모임 간사로 일을 하며 전교조 문화국 풍물패와 연결이 되어 다시 풍물을 배울 기회가 생겼으나 그땐 지금의 남편과 연애중이라 일주일에 한번 있는 모임에 참석하기 힘들었다. 당시 남편은 군입대를 기다리는 야간 대학원생으로 밤에 시간을 내기가 서로 힘들었는데 풍물모임이 있는 요일이 그나마 가장 편안하게 만날 수 있었기에 아쉽지만 모임을 그만두게 되었다.

3년 정도 전국역사교사모임 간사로 일을

하고 있을 즈음 여성의 탁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내게 뜻밖에 제의가 있었다. 대학 다닐 때 계속 자원봉사를 했던 지금의 직장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해줄 수 있느냐고. 유아교육에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나였지만 무척 하고 싶었던 일이기에 자신은 없었지만 도전해보기로 했다.

6.7세 혼합의 아이들과 1년을 생활하고 다시 3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난 우선 기능적으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다. 항상 그점이 안타까움으로 다가왔는데 98년 한국보육교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던 이은애 원장님이 이화어린이집으로 오시면서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보육계의 많은 정보와 모임을 소개하며 어린이집 교사로서 조금은 나태해지고 있는 내게 자극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놀이와 노래, 악기를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접하고 익혀서 친숙해지도록 교사들이 먼저 국악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셨다.

바쁜 하루 일과로 지치고, 결혼을 앞두고 무척 바쁜 시기였지만 우리 가락, 노래를 배우며 어깨춤이 절로 나오고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 타령을 입에서 흥얼거리고 있노라면 너무도 흥겹고 즐거웠다. 일주일에 한번 한 달에 4번의 교육이었지만 그동안 들었던 게 있었던지 생각보다 쉽게 익히고 그 익힌 것을 다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이 국악을 배우고 즐거워하는 걸 보는건 행복감과 어린이집 교사로서의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다. 그리고 바쁜 하루 일과로 서로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던 동료 교사들과 서로 몸도 부딪히고 노래도 하며 시간을 보내다보니 친밀감도 많이 형성되었다.

그 좋았던 감정을 가지고 5월말부터 다시 2단계교육으로 장구를 배우기로 했는데 장구도 열심히 배워서 나의 예쁜 악동들과 장단 맞춰 우리 나라 민요를 멋드러지게 부르는 날이 오도록 하고 싶다.

[찾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의 대변지로 제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하는 『우리네 아이들』이 사람을 찾습니다.

재치있는 사람, 글쓰기 좋아하는 사람, 책을 많이 읽는 사람, 발 넓은 사람 등등 뭔가 하고픈 욕망에 사로잡힌 분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런 분, 연락주세요.

아, 그리고 그런 분이 아니더라도 『우리네 아이들』에 이름이 나가고픈 분들의 글도 받습니다.

꼭 전화주세요.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

(02)275-8506

보육계 풍향

교육센터 교육강좌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훈련 프로그램

<보육교사 직무능력 강화훈련>

- 컴퓨터를 통한 정보활용능력, 실무력 강화 훈련-

▌1강. 문서작성의 기초 / 교육계획안 만들기 / 가정통신문 만들기 실습

▌2강. 통신망 접속방법과 인터넷 접속법 / 보육관련 정보 찾기 실습

일시:1998년 6월13일(토)
오후 4시-8시

장소:나우누리 오프라인

회비:1만원

<건강교사 양성을 위한 특강>

▌1강.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김태경-홀트아동복지부속병원 원장)

▌2강. 어린이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염성 질환(정기현-성북구 보건소/서울대 의료학 교실)

▌3강. 어린이 구강보건(곽정민-서울특별시 학교보건원)

▌4강. 어린이사고와 외상처치(정일용-연천군 보건소 일반외과)

▌5강. 유아기에 흔히 볼 수 있는 소아정신과 장애(전지홍-한국보훈병원 소아정신과)

일시:1998년 6월19일
오후 7:30-9:30
1998년 6월20일
오후 3시-6시 양일간

장소:종로천주교회 강당

회비:2만원
(회원 10% 할인)

<좋은 그림책 100권 보기>

▌1강. 좋은 그림책이란?

▌2강. 연령별 그림책 보기

▌3강. 어린이집에 있는 그림책 모니터 해오기

▌4강. 그림책의 교육적 활용
-연극, 역할극 하기 / 다른 영역활동과 결합해보기 / 다양한 활동

일시:1998년 6.17-7.8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장소:여성평화의 집 지하 강당

회비:2만원
(회원 10% 할인)

한국보육교사회 보육교사 여름연수

알립니다. 보육교사 여름연수를 올해는 서울·경인, 전주·광주, 대구·부산 3권역으로 실시합니다.

장소와 일정은 아직 미정이고 단, 서울·경인권은 7월 25일(토) 오전 10시부터 저녁10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1박2일에서 파격적으로 당일 연수프로그램으로 두가지 주제로 심화과정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기다리며 7월25일을 기억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학연구소-제3회 현장교사를 위한 여름방학 워크샵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 센타에서는 유아교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98년 여름방학 워크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프로젝트 접근법 실제

내용:유아교육기관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의 실제 현

장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접근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활동과정과 방법, 적용에 대해 실제적인 연습을 합니다.
기간:7.10(금) 14:00-17:00
11(토) 09:00-15:00
장소:숙명여자대학교 중강당
등록비:5만원
(식사·교재비 포함)
등록계좌:조흥은행
366-04-350717
사회교육과학연구소
문의처 : 02)710-9787,
710-9729

발도르프 교육연수-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 연합회

*일정:1차 7월27-29일
2차 7월30-8월1일
*장소:숭실대 사회봉사관 대동강 예정
*참가비:15만원 예정
*접수마감:6월15일까지
*강사-MARIANNE KORN (슈타이너학교 교사), 통역강사-변종인(슈타이너 교사과정 이수중)
*프로그램(총 6강좌)
1. 슈타이너 교육의 형성 역사와 현재의 모습에 대한 개괄적인 강의
2. 슈타이너 교육의 철학-인간관을 중심으로
3.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소개 -1일, 1달, 1년 (VIDEO교육)
4. 교육실습Ⅰ-인형만들기
5. 교육실습Ⅱ-오이리미트 (슈타이너 교육이념에 따른 다양한 율동 등)
6. 교육실습Ⅲ-음악교육, 라이너/왜 5음계를 사용하나?
*문의처 : 02)793-0115, 7461

YMCA 사회교육부 유아실기 체육놀이 중점연수

*일시:6월20일(토)
오후3시-6시
*장소:서울YMCA 대강당
*주제:여름캠프를 앞두고
*내용:새로운 손유희, 씽킹게임, 자율적인 신체표현, 교육무용, 체육놀이, 창작체조, 캠프를 위한 레크레이션, 포크댄스
*문의:YMCA 사회교육부 (주간 02-732-8757, 야간 02-391-9451)

유아교사 실기강습회

*일시:6월27일(토)
오후 3시-5시
*장소:평화보육교사교육원
*내용:7월 단원별 실기교육 지도
*문의:(02)744-4958, 762-4558

6월 창작놀이 강습회

*일시:6월13일(토)
오후 2시-5시30분
*장소:유아놀이 연구회관 (지하철 2호선, 5호선 왕십리역 7번 출구에서 100미터)
*교육주제:우리 동네, 우리들의 이웃, 여름날씨(비·우산), 시장놀이, 병원놀이
*교육내용:담화, 동화, 동요지도, 교육무용, 손유희, 동요지도, 교육무용, 손유희, 집중놀이, 환경구성(꽃, 모빌), 모루공예, 아동미술교육
*참가비:1만5천원 (교재 및 재료 제공)
*준비물:색종이, 가위, 풀
*문의:(사)유아놀이 창작연구회(02)292-3273

삼성어린이박물관 6월 행사

삼성어린이박물관에서는 6월을 '환경의 달'로 정하고,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자 환경보호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마련하였다.

행사내용은 재활용품을 이용, 어린이들이 직접 다양한 용품을 만들어 볼 수 있으며, 수질 오염 실험을 통해 잠실 근처의 수질 오염도를 실제로 측정해 보는 흥미로운 코너도 준비되어 있다.
*재활용품 공예:6월7일, 14일, 21일, 28일 오후 1시 -5시 사이
*환경나무 구성:6월1일-30일
*수질오염실험:6월14일
*곤충이야기:6월21일
*수묵화 그리기:6월28일

색종이 접기 강좌 개설

장소:북부 한미어린이집
기간:6월 중순부터 2개월간 (6월18일부터 매주 목요일 예정)
강사:유미형선생님
참가비:약간의 실비
문의:한국보육교사회
02)275-8505
(박정애 조직부장)

참여사회아카데미 '98 여름학기

<사회운동워크샵2-현장과 인물로 보는 한국사회운동 10년, 그 경험과 교훈>

6/11 시민운동 - 시민운동 10년 / 이홍균(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임연구원)
6/18 여성운동 - 여연 10년 /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6/25 환경운동 - 공추련 10년과 환경련 5년 / 최열(환경련 사무총장)
7/ 2 언론운동 - 언노련 10년과 언론개혁운동 / 손석춘(한겨레신문 노조위원장)
7/ 9 진보정치운동 - 민중당부터 국민승리21까지 / 노희찬(진보정치연합 대표)
7/16 노동운동 - 전노협에서 민주노총까지 / 김금수 (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7/23 워크샵-졸업논문 발표
주최:참여연대 참여사회아카데미
수강료:5만원
장소:참여연대 2층강당
문의:02)723-5304

IMF를 살아가는 부모 역할 교육

한국어린이육영회 연수원은 어려운 IMF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의 역할을 제고하는 강좌를 실시한다.
*교육대상 : 여성·모성으로서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원하는 여성, 여성봉사자, 지도자 등.
*기간:6월18일(목)-19일(금)
*장소:한국어린이육영회 생활관
*내용:① 주내용-특강, 나를 알고(MBTI 진단을 기초로), 나를 다스리고 (심성훈련 워크샵을 중심으로), 내 가족을 보듬고(가족역할, 대화기법, 갈등극복 워크샵을 중심으로)
②교양내용-어우러기 (한마음 한마당), 예절 갖춘 부모 되기(전통예절, 생활예절을 중심으로)
*교육비:1인당 6만5천원
*문의:한국어린이육영회 연수원 부모교육과
(02)431-0685

실직자를 위한 일자리 정보제공에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노동부에서는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htt:\\WWW.molab.go.kr) 및 PC통신(천리안, 하이텔등 : go mol)을 이용해 하루 평균 500여건의 신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1일 평균 1만여명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소식과 소식

유아교육제제 개혁에 관한 회의

지난 5월22일 우리 회에서는 4월17일의 1차 모임에 이어 본회의 정희연 회장, 허선 교수(참여연대 보육담당), 신정혜 연구원(공동육아), 윤선영 선생님(독일 베를린대학 유아복지교육학 박사과정)을 모시고 '유아교육법(안)제정에 관련한 모임'을 가졌다. 1차 모임에 함께 참여했던 여성단체연합은 다른 일정이 겹쳐 불참하였다.

모임에서는 각 참여단체와 참여자의 유아교육법(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유아교육의 개혁과 보육의 질적 고양이라는 두 축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의 공청회를 7월 중순 전에 열기로 합의하였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난 5월19일 2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보육시설연합회 국·공립보육시설분과위원회 주최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균관대 아동학과 이영석 교수의 〔영유아보육법 개정 필요와 그 방향〕이라는 기조발제에 이어 보건복지부 보육아동과 신현수 과장,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이소희 교수, 선봉어린이집 강달금 원장,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 기조발표자인 이영석교수는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와는 변화된 보육개념의 변화, 주변환경의 변화, 보육인식의 변화, 보육의 공공성 증대의 필요성을 들어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시민운동지원기금 공모사업 선정-[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보육문제 검토회 및 토론회]

시민운동 하반기 지원사업 공모에 본회가 제출한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보육문제 검토회 및 토론회〕가 이슈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150만원의 사업기금 지원을 받게 되었다.

작년부터 유아교육개혁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정작 어린이인권의 관점에서 현행 보육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회에서는 어린이와 함께 생활하는 현장보육교사들과 관련학자, 학부모 및 여성단체와 함께 현행제도를 개선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제2차 본회 이사회

5월16일 본회사무실에서 제2차 이사회가 있었다.

이번 이사회 집중사업 보고는 각 지역에서 개최된 어린이날 행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어린이날 행사의 의미와 방향을 재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현안으로 떠오른 유아교육법안에 대한 지부별 토론 내용을 공유하고 각 지부에서 2차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집행부에서 현행 회원체계와 조직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각 지부의 논의를 거쳐 다음 이사회때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유아교육법안에 대한 논의

지난 5월28일 보건복지부 김명숙 심의관 이하 보육아동과 관계자들과 본회 회장단,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소장, 사무국장이 함께 하는 만남의 자리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유아교육법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제1기, 제2기 국악강좌 수료

지난 4월2일부터 매주 목요일 4회에 걸쳐 제1기, 4월17일부터 금요일 4회에 걸쳐 제2기 국악강좌가 이화어린이집과 한미어린이집에서 있었다.

고정미선생님이 매주 인천에서 서울로 출장 오며 올바른 호흡법, 장단 익히기(구음), 소고춤, 전래동요, 전래놀이 등을 지도하였다.

수료생은 제1기 9명, 제2기 10명이고, 특히 제1기 수료생중 5명이 풍물강좌를 5월29일부터 5주동안 연속 진행할 예정이다. 역시 고정미선생님이 강의하신다.

여성단체장 청와대 오찬모임 참석

지난 5월20일 12시부터 오후 1시반까지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초청 여성단체장들과의 오찬모임이 있었다.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단체연합 소속 회원단체들과 여성계 인사들, 200여명이 모인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여성계의 바램과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여성정책의 내용이 이야기되고 또한 여성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개인적 의견이 피력되었으며, 본회에서는 정희연 회장이 참석하였다.

인천보육교사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경미선생님(5/21), 최금자선생님(6/14), 손수정선생님(6/25)

■제3회 스승의 날 자축연을 올해는 야외에서 한번 해보았어요. 역시 자연과 함께하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선생님들과 함께 한 오월 십칠일, 그 하루종일의 행복!!!

■5월 20(수), 27(수), 31(일)일 3회에 걸친 일정으로 신진교사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산행이고요. 현재 4분의 선생님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강/한국보육교사회 역사와 역할
2강/교육철학
3강/보육교사의 자기진단에 관한 토론

수료식은 6월 회원의 날에 있습니다.

■인천지부 소식지 창간 준비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궁금하신 분 연락 주세요. (032-518-0213)

광주보육교사회

■회원들의 귀 빠진 날 모두 모두 축하드려요. 늘 건강하세요!
박말신선생님(5/9), 김지선선생님(6/16), 이정미선생님(6/23)

■5월14일 저녁 스승의 날을 맞아 조촐하지만 뜻깊은 '보육교사의 날' 자축연을 가짐. 마니또 선물 교환식이 하일라이트였다나요... 전국의 보육교사님들 더욱 힘내세요.

■5월6일 광주보육교사회 '유아교육법안 토론회' 개최

■6월16일 광주보육교사회 '유아교육법안 2차 토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6월22일부터 2주 예정으로 신입회원교육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선배선생님들, 후배에게 힘 팍팍 주시구요. 새내기 선생님들 잘해보자구요.

■6월6일 '한나라 밟기' 주최 교사기행이 있답니다.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답사를 통해 조국애의 참의미를 배워올께요.

전북보육교사회

■전북보육교사회는 '유아교육개혁에 관한 토론회'를 6월12일에 회원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중앙 사무국에서는 정희연회장과 박정애조직부장이 참석합니다.

사 람 들

 # 회비를 내셨습니다

(98년 4월29-5월 29일)

****'97년 미납분**

차윤희 12월분, 김량희 1개월분, 류필녀 1개월분, 나은미 2개월분

****'98년 1월분**

차윤희, 임민행

****'98년 2월분**

임민행

****'98년 4월분**

▶ **경기** : 임미란, 나은미

▶ **서울** : 오윤정

****'98년 5월분**

▶ **서울** : 김량희, 주혜민, 박인혜, 김수연, 이경녀, 황호정, 김숙자, 황미혜

▶ **인천** : 문유미, 이숙희, 이순, 이경미, 박미향, 노승경, 손수정, 이은희, 최은하, 박은정, 박은아, 박옥선, 안경아, 이연순, 임민행, 이현주, 고정미

▶ **경기** : 류필녀, 임미란, 이기원, 이주영, 강영신, 지연, 윤금주

▶ **전북** : 김미숙, 강선희, 최은경, 강주연, 이지영, 서은희, 유주연, 최수진

▶ **경남** : 박미정

▶ **기타** : 정희연, 이선주, 서은희, 임남희, 최순옥, 박정애

****'98년 6월분**

▶ **경기** : 임미란, 이기원, 이주영, 강영신, 지연, 윤금주

▶ **전북** : 김미숙, 강선희, 최은경, 강주연, 이지영, 서은희, 유주연, 최수진

▶ **경남** : 박미정

****'98년 10월분까지 한남**

▶ **경남** : 박미정

 # 후원에 감사합니다.

■오윤정선생님이 지난 1월부터 회비 외에 월 1만원씩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본회 5월 활동일지

5/ 2 집행위원회 하루MT
6 여연조직위원회 회의
8 북부지역 국악강좌
11 건강교사수첩 준비모임
12 집행위원회 회의
16 이사회
19 집행위원회 회의
여연 사무국장 연석회의
영상매체의 교육적 활용 강좌
22 정책개발위원회 회의
유아교육체제개혁에 관한 회의
북부지역 국악강좌 수료식
25 확대집행위원회
여연 복지위원회 회의
건강교사수첩 준비모임
26 정책개발위원회
영상매체의 교육적 활용강좌
27 '98 여름연수 기획팀 모임
28 LPE 학습 소모임

■ ■ ■ 편집부에서 ■ ■ ■

마음도 뜨거워지는 여름을 준비해요!

엘니뇨 때문에 올 한해 아직 태풍이 출현하지 않았답니다. 홍수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기도 하지만 태풍의 간접영향권 안에 들어가면 바다의 적조현상을 없애게 되는 잇점도 있다는 얘길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 엘니뇨 때문에 여름이 너무나 빨리 찾아와버렸어요. 아직 선풍기 꺼낼 생각도 안했는데 말입니다. 아이들도 지치고, 아이들과 씨름해야 하는 우리의 보육교사들도 지치는 여름...

몸에만 엘니뇨가 찾아와서일까요? 우리의 마음에도 그 뜨거운 엘니뇨현상이 생겨서 활활 타오른다면 무더위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겠죠?

엘니뇨야- 내 가슴 속에 들어와주라-

이번호는 쉽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인의협의 『어린이건강』과, 통신마당 『채팅실에서』가 이번호에는 부득이하게 쉬게 되었습니다.

다음호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지사진을 보내주세요.

『우리네 아이들』의 얼굴을 보내주세요.

아이들의 모습(울고 있어도 좋아요), 또 그런 아이들에게 땀과 사랑과 시간을 바치는 우리 교사들의 모습,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사진은 꼭(!) 돌려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생각과 원고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교사의 대변지로, 다양하고 도움이 되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편집부의 헌신과 함께 회원들이 보내주는 각종 아이디어와 원고가 풍부하다면 더 없이 좋은 소식지가 되리라 믿기에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아이디어, 또 교육현장과 생활현장에서의 글을 보내주시면 감사 또 감사하겠습니다.

교사들의 주체적인 참여만이 『우리네 아이들』의 살 길(!)이랍니다.

자료회비를 받았습니다.

1년구독 : 지암어린이집

6개월구독 : 김찬숙

자료회원님 의 자료회비를 받았습니다.

구독기간이 마감되어 재구독을 원하시거나 구두신청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네 아이들』 계좌번호로 자료회원 회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후 연합회 사무실로 전화 확인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구요.

특히 본인 아닌 타인명의나 단체명으로 송금하실 때에는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메모

<퍼즐퍼즐 정답 응모지>

퍼즐 퍼즐 경품잔치(?)에 참여를 원하시는 독자님은 퍼즐 정답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밑에에도 작실하게 작성하셔서 본 지면을 오려서 한국보육교사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앞표지에도 나와있지만 친절하게 사무실 주소를 알려드리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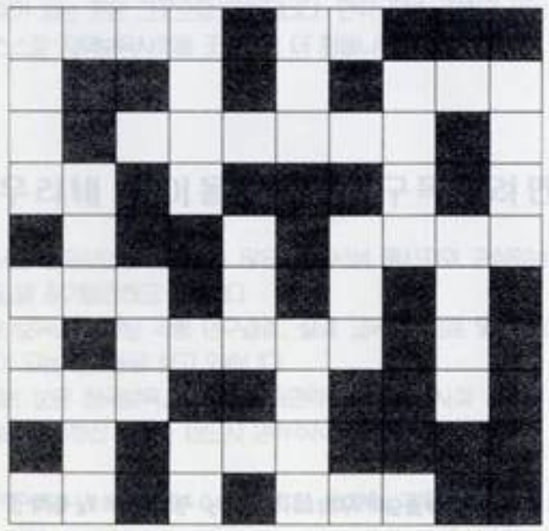
(우) 100-391 서울 중구 장충동1가 38-811 여성평화의 집 3층
한국보육교사회 『우리네 아이들』 담당자 앞

이라고 편지봉투 겉면에 써주시면 됩니다.
아참, 보내시는 분의 성함, 주소, 그리고 소속 시설명 잊지 마시구요.

첫 번째 부탁 : 회원님은 다음중에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십니까? 해당번호란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1) 한국보육교사회 정회원
2) 한국보육교사회 준회원
3) 한국보육교사회 자료회원(『우리네 아이들』 정기구독자)
4) 기타 우연찮게 퍼즐에 응하게 된 사람

두 번째 부탁 : 제9회 퍼즐 퍼즐의 정답을 아래 빈 칸에 적어주세요.



세 번째 부탁 : 『우리네 아이들』을 보신 후 바라는 점이나 건의사항 등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아마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번째 부탁 : 한국보육교사회(또는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 하시고픈 말씀이 있으시면 여기에 사정없이 적어주세요.

고맙습니다.

회원님의 글 한자 한자가 보육교사회와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 · 사 · 선 · 언 · 문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치.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보육교사회 회원이 되려면

본회의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분은, 지회나 지부가 있는 지역에서는 각 단위에 회원신청서를 내고 정회원이 되기까지 준회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준회원은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단, 총회의 의결권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회나 지부를 통하지 않고 중앙으로 직접 들어오는 회원은 중앙의 관리 속에 한국보육교사회 활동-총회, 수련회, 각종 세미나와 강좌-을 할 수 있습니다.

준회원은 각 단위에서 결정한 준회원회비(가입비)를 내고 정회원과 동일한 자료나 회지, 중앙의 연락을 받습니다. 또한 준회원은 1년 이내에 신입교사교육(필수교육)을 받은 후 정회원으로 되며 회원결정은 각 지부, 지회에서 하며 이사회에 보고한 후 총회에서 인준합니다.

중앙으로 직접 들어오는 회원은 중앙에서의 신입교사교육후 정회원이 되어 그 회원의 주거지, 보육시설 위치에 따라 지부, 지회가 있는 곳은 그곳으로 배치됩니다. 만약 지부, 지회가 없는 곳은 계속 중앙의 관리를 받으며, 이 회원들은 스스로 지역보육사회를 조직하는 데 힘씁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려면...

한국보육교사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 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실제 교육프로그램 및 영유아 교육의 이론 등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싣고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보육교사회로 전화연락주시거나 교사회 지부나 지회 등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자료회비를 입금하신 후에는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송금구좌: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회인 (6개월 구독 16,000원 1년 구독 30,000원)

"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보, 어디서 얻습니까? "

정보 제공

- PC통신에 '어린이집, 놀이방 정보'를 제공하여 보육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시설 홍보

- 현재 전국의 5천여개 어린이집, 놀이방이 PC통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보내주시면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에 광고해 드립니다.

교사 알선

- 선생님을 구하려는 시설과 보육사업에 함께 하실 예비 선생님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로 직접 신청하거나 PC통신을 이용하여 원하는 분들을 만나십시오.

연구 개발

- 보육사업의 전문 영역 연구와 정보개발을 통해 더 나은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정책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 놀이방 정보이용

- 천리안 : GO BABY
- 하이텔 : GO BEBO
- 유니텔 : GO BEBO

본 화면은 하이텔 제공 메뉴입니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Korea Daycare Information Research

서울 중구 묵정동 16-27 대학문화원 426호 · TEL.(02)268-3954/271-1547~8 / FAX. (02)271-1548 · ID. KDIRBEBO(하이텔) ZPKBABY(천리안)